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STUDY ON GROWTH OF CHURCH PLANTS THROUGH CELL MINISTRY:
FOCUSED ON RIVERSIDE LORD LOVE CHURCH**

written by

Sung Chul Shin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has been read and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entor: Seonmook Shin, DMiss

April 2018

Date _____

**A STUDY ON GROWTH OF CHURCH PLANTS THROUGH CELL
MINISTRY:
FOCUSED ON RIVERSIDE LORD LOVE CHURCH**

셀사역을 통한 교회개척성장에 관한 연구:
강변주사랑교회를 중심으로

By

Sung Chul Shin

A DMin Fi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APRIL 2018

ABSTRACT

Shin, Sungchul

2018

“A Study on Growth of Church Plants Through Cell Ministry: Focused on Riverside Lord Love Church.”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69 pp.

This dissertation’s main objective is to study the method in church planting and present ways to successfully start a church with cell ministry.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studied bibl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cell, and proceeded the dissertation through the four types of development stages.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is the biblical and historical meaning of cell church? 2. How does it effect the church and its members when the church plant starts with cell church? 3. What are the proper functions and adverse effects when planting with cell church? 4. What are the most effective ways to plant a church with cell church?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5 chapters. Foremost, the first chapter will examine the current condition of time and of Korean churches when the church is planted, and it will address the research background, purpose, goal, importance, core task, questions, methods, terminology, and research introduction.

Chapter 2 will start with preceding research on cell’s original form GooYuk, and its definition, purpose, structure and function. And it will present definition, structure, and difference between cell and GooYuk through contemplated bibl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Biblical backgrounds were classified through Old Testament, Gospels, Acts and Epistles, and historical background before, and after the Reformation.

Chapter 3 is a case study on PoongSungHan Church's growth through cell ministry, and its core ministry values.

Chapter 4 will deal with the ways Riverside JooSaRang Church has prepared to plant with cell ministry, their ministry vision, the surveys of members' understanding, and the result of cell ministry after five years of planting. The current situations were analyzed through surveys, and it proposes a methods for church plants in the future.

Chapter 5 includes a summary, and conclusion with a proposal. With various difficulties growing in current church planting scene, this study will propose to prepare healthy church plant with cell ministry.

Mentor: Seonmook Paul Shin, D. Miss

314 words

개요(ABSTRACT)

신성철

2018 “셀사역을 통한 교회개척성장에 관한 연구: 강변주사랑교회를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69 pp.

본 논문에서 논자는 셀사역을 통한 교회개척의 방법연구와 성공적인 교회시작을 이뤄나가고자 하는 주요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셀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고, 그를 위한 4가지의 개발단계를 중심으로 논문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중심과제에 근거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셀교회의 성경적,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2. 셀교회로 개척되어 질 때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셀교회로 개척되어 질 때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가? 4. 셀교회로 개척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전체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논문의 제1장은 현 시대적 상황과 교회가 개척될 때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중심과제, 질문들, 방법들, 용어의 정의, 그리고 연구개관 등을 개괄적으로 제시했다.

본론의 내용인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로 셀의 원형이 구역에대한 이해와, 구역의 정의와 목적, 구역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셀의 정의와 구조, 기능, 셀과 구역의 상이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고, 성경적 셀에 대해 살펴봄, 셀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성경적 배경에는 구약과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역사적배경에는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셀사역으로 성장한 풍성한교회를 사례연구하였고, 풍성한교회의 사역정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셀사역을 통한 교회 개척준비로 강변주사랑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비전과 , 개척 5년 후의 성도들의 셀사역에 대한 이해와 결과들을 성도들에게 설문조사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셀사역을 통한 교회개척의 현주소, 미래개척 교회를 위한 방안들을 기록하였다.

논문의 결론인 제5장에서는 전체적인 요약과 결론, 그리고 제안을 밝혔다. 교회개척의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장차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셀사역을 통한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셀사역이 교회개척은 동력이 됨을 제언했다.

Mentor: Seonmook Paul Shin, D. Miss

222 words

헌정(DEDICATION)

늘 묵묵히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 신남출장로님, 박정자 권사님,
한정웅 집사님, 유제숙 권사님,
선교적 목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정병관 교수님,
형님과 같은 조언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르쳐주신 이호우 교수님,
목회자의 정도를 가르쳐주신 노한상 목사님,
목회철학의 기틀을 세워주신 김은호 목사님,
예배자의 정신을 가르쳐주신 하스테반 선교사님,
기도의 동역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랜 벗 송석배, 이우용, 장익봉 목사
무엇보다 이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아내 한창혜와,
사랑하는 딸 하영, 주영, 지영, 주안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보잘 것 없고 나약한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모세의 고백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 나를 변화 시켜 가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같았지만 그때에 목회자로서의 꿈을 주시고, 성장하며 그 꿈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전통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른때에 셀에 관심을 두게 하였고,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고, 많은이들이 경험 할 수 없는 미국교회들의 사역의 현장과 셀처치를 탐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뱅크 소재 베다니 한인교회에서 셀사역을 접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훌륭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유학생활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부모님들, 직접 캘리포니아로 오셔서 함께 해주셨던 장인, 장모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였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개척의 현장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목회사역에 도움을 주고 있는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영,주영,지영,주안에게 감사 드립니다.

무엇보다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유학생활과 개척교회를 함께 시작했던, 날마다 기도로 묵묵히 내조하며 끝까지 나를 믿어주었던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ABSTRACT.....	ii
개요(ABSTRACT).....	iv
헌정(DEDICATION)	vi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vii
목차(TABLE OF CONTENTS).....	viii
표 목록(LIST OF TABLES)	xi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xii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Background)	1
연구의 목적(Purpose).....	3
연구의 목표(Goals)	3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3
연구의 중심과제 (Central Research Issue)	4
연구의 질문들 (Research Questions)	4
연구의 범위 (Delimitations)	4
연구의 방법 (Methodology)	4
용어의 정의 (Definition)	5
연구 개관 (Overview of the Study).....	5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7
구역에 대한 이해	7
구역의 정의와 목적	7
구역조직	8
셀에 대한 이해	9
셀의 정의	9
셀의 구조와 기능	9
셀모임과 전통구역의 공통점과 상이점	10
셀과 제자훈련의 공통점과 상이점	10
셀과 가정교회의 공통점과 상이점	11
성경적 셀에 대한 고찰	13

성경적 배경	13
역사적 셀에 대한 고찰	17
종교개혁 이전	17
종교개혁 이후	18
제 3 장 사례연구(풍성한교회-부산 연제구 소재).....	21
셀사역으로 성장한 풍성한교회.....	21
풍성한 교회의 사역정신	22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복종하는 정신	22
전 성도의 사역자화	23
가족공동체로서의 교회본질 회복정신	24
두 날개 양육시스템 소개.....	24
1단계: 전도	25
2단계: 정착	26
3단계: 양육	27
4~6단계 / 세계비전제자대학 :총 3학기	28
제 4 장 셀사역을 통한 강변주사랑 교회개척.....	30
비전	30
강변주사랑교회 비전과 목표	30
강변주사랑교회 사명 선언문:	30
강변주사랑교회의 8대 목표:	32
필요 중심적 전도	32
영감 있는 예배	33
하나되는 교제	33
전인적인 셀그룹(목장).....	34
열정적인 영성	34
200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	35
은사 중심적 사역	35
세계비전 20 선교	35
강변 주사랑교회 목장의 정의.....	36
목장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36
목장은 자라나는 공동체	36
2020 세계비전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	36
2013년 대그룹 축제(예배) 및 활동	37
예배의 여러 형태와 내용	37
교회성장을 위한 교회활동 및 각종 모임.....	38
열린모임(12주, 3, 9월 시작) 교재:열린모임 실행1,2.....	38
새 가족 섬김이 사역(4주) 교재:새가족섬김이학교.....	39
양육반 (정해진 시간) 교재: 양육의 기쁨.....	39
제자훈련(정해진 시간) 교재: 제자의 삶.....	39
군사훈련(정해진 시간) 교재: 군사의 삶 I,II.....	39
재생산훈련(정해진 시간) 교재: 재생산의 삶 I,II.....	40
중보기도학교(정해진 시간) *교재:중보기도학교 *대상:	
1학기 제자훈련이상 수료생	40

교역자회의 [매주 토요일 기도모임 후] *장소: 경찬본부	41
강변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셀사역의 이해 및 상황분석	41
나는 전통교회와 셀교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43
우리교회가 셀교회로 사역할 때 당신의 의견은?	45
반대한다면 어떤 의견에서 반대하는지 써주세요	47
셀교회의 셀에서의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48
셀교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0
셀교회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1
건강한교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써 셀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3
셀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54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말해주세요	57
셀교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58
개척자들과 셀사역 헌신자들을 위한 제언	59
개척자들의 자세	59
개척자들의 준비	59
셀사역의 제언	60
 제 5 장 결론	61
요약	61
결론 및 제언	63
 ENGLISH SUMMARY	65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68

표 목록(LIST OF TABLES)

<표 1> 나는 전통교회와 셀교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43
<표 2> 우리교회가셀교회로사역할때당신의의견은?	45
<표 3> 반대한다면 어떤 의견에서 반대하는지 써주세요.	46
<표 4> 셀사역의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48
<표 5> 셀교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9
<표 6> 셀교회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1
<표 7>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써 셀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2
<표 8> 셀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54
<표 9>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말해주세요.	55
<표 10> 셀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58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그림 1> 두날개양육시스템	25
-----------------------	----

제 1 장

서론

이 연구는 셀사역을 통한 교회개척의 방법들에 대해 연구한다. 셀의 성경적, 역사적배경을 연구할 것이며, 셀사역을 통한 교회개척의 순기능적 역기능적 변화들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목표, 중요성, 핵심연구와 질문들, 가정과 요약을 연구할 것이다.

연구의 배경(Background)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개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다. ‘개척은 성공할 수 없다.’ ‘몇 년간 고생하다가 문을 닫을 것이다.’ ‘100교회중 2~3교회가 살아남고 있다.’ ‘요즘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는다.’ ‘개척교회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말들이 본인이 개척교회를 시작할 무렵 들은 말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목회자들을 통해서라는 것은 그만큼 개척 사역이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도 본인과 불과 몇 개월을 사이에 두고 개척한 교회들이 3년안에 사역을 포기하는 상황을 보기도 하였다.

또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 교회 자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종교로 인식하고 있는 현시대에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않은 결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기에 포기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사역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목회의 툴(Tool)로 준비되었던 셀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셀의 광풍이라 할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셀사역을 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교회성장의 방안으로 셀사역을 시도한 교회들이 있었다. 본인이 16년간 사역한 교회(동산교회-군자동소재) 역시 전통교회에서 셀교회로 전환을 한 경우이다. 셀로 전환을 한후 약 6년의 시간이 흐르고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서 또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 양적 성장의 이면에 성도들의 피로도의 누적과 리더들의 탈진, 가정의 분열등 여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인지, 문제해결의 방법들은 어떤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유학을 떠나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여러교회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개교회들의 획일화된 형태들을 보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하는 질문을 가져보게 되었다. 경험한 교회들의 예배의 형태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열린예배라던지 구도자예배, 축제예배의 형태로 예전의 각 교단과 교파의 특색있는 모습들이 사라진듯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교회의 성장 둔화에 대한 개교회들의 반응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양적인 성장의 둔화를 극복하고자 다른교회들이 시도하고 있고 또 그 결과물을 통해 우리교회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획일화된 훈련과 획일화된 예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개교회의 특성과 지역적, 사회적, 교육적, 위치들을 고려하지 않은 시도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논자가 사역하였던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만을 바라보고 사역할 때에 교회가 받게될 휴유증이 너무도 크다는 것이다.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도시개척교회를 시작한 5년이 지난 현재, 개척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지 시작하였다. 셀사역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작은교회에 접목이 가능할 것인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셀사역이 도움이 될것인가? 해가 될것인가? 셀목회는 교회의 외적인 크기와 관계가 없는 것인가?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어떤것인가? 하는 질문들이었다.

따라서 본인은 셀교회로 교회개척을 시작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셀사역으로 교회개척을 시작할 때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

역기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적, 역사적, 및 선교학적 이론연구와 한국 셀교회에 대한 상황연구를 통하여 셀사역을 통한 개척교회의 성공적인 교회 시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표(Goals)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셀사역의 성경적인 근거를 이해하게 된다.

둘째, 셀사역의 역사적인 근거를 이해하게 된다.

셋째, 셀사역을 통한 교회개척과 성장의 단계를 이해하게 된다.

넷째, 강변주사랑교회의 개척의 현장을 이해하게 되고 셀사역을 통한 열매를 확인하게 된다.

다섯째, 강변주사랑교회의 교회개척 성장의 동력을 알게 되고, 셀사역의 나아갈 제안점과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연구는 첫째는 나 자신에게 중요성을 갖는다. 지금 개척한 교회의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중요하고, 성도들 역시 전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교인들이기에, 그런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가진 성도들을 셀사역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성도와 목회자, 교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새롭게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개척 멤버들에게, 선교현장의 교회들의 모델들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의 중심과제(Central Research Issue)

본 연구의 핵심부분은 셀사역으로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에 교회의 성장방안과 교회와 성도, 목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셀사역의 성경적,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셀사역으로 교회가 개척될 때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셀사역으로 개척될 때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가?

셀사역으로 개척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연구의 범위(Delimitations)

본 연구는 강변주사랑교회의 셀사역을 통한 교회개척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강변주사랑교회의 개척의 현장에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Methodology)

본 연구에서는 셀교회의 성경적 역사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문헌 연구적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McALISTER LIBRARY 도서관의 한국어 자료 즉 한국어 도서와 Fuller SOT 박사 학위 논문 및 Fuller SIS의 박사학위 논문을 참고할 것이며, 베데스다 대학 도서관의 한국어 자료를 참고할 것이다. 또한 범주 3,4항 셀교회로 개척될 때 성도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과 순기능 역기능의 연구를 위해서는 현장연구 방법 및 참여자 관찰 방법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셀리더들과 인터뷰를 시행할 것이며, 현재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강변주사랑교회의 평신도사역자들을 대상으로도 연구할 것이다.

용어의 정의(Definition)

전통교회의 소그룹 - 전통교회의 소그룹은 대부분 구역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구역은 성도들을 관리하는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구역을 통한 양육과 성장이라든지, 구역안에서 전도모임이 일어나 구역이 배가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구역은 구역 자체가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셀 - 셀이란 단어는 조용기목사가 집필한 ‘성공적인 구역조직’을 영어로 번역할 때 처음 사용된 단어이다. 즉 ‘구역조직’의 영어 번역이 셀인것이다. 셀을 한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셀교회 속의 작은 소그룹으로 예배, 교제, 섬김, 전도, 양육, 상호책임이 있는 셀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성단위’라고 할 수 있겠다.

셀교회 - 셀교회는 셀이 모여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 것을 셀교회라 한다. 즉 세포하나하나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셀교회는 기초가 되는 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이다.

셀목회 - 셀목회는 작은교회로 이루어진 셀의 기능들을 인정하며 목회의 방향을 셀에 기초한 목회 방향으로 잡아나가는 것이 셀목회이다.

연구개관(Overview of the Study)

본 논문은 서론, 선행연구고찰, 사례연구, 셀사역을 통한 교회개혁 준비, 요약과결론,제언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은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용어의 정의, 연구개관으로 이루어져있다. 제2장은 셀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로 셀의 성경적, 역사적 연구이다. 제3장은 셀교회로서 교회성장을 이루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풍성한교회(부산소재)를 리서치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할 것이다. 그리고 셀그룹을 통한 번식과 교회성장에 대해 알아본다. 제4장은 연구질문을 기본으로 제3장에서 조사된 자료들을 강변주사랑교회 개혁의 현장에 접목시켜 연구할 것이고, 셀리더 사역자들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셀에 대한 의식변화와 셀사역으로의 개혁이 개혁교회에

어떤 순기능 역기능을 가져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1장에서 제시된 연구질문들이 검토되어질 것이다.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요약과 결론, 그리고 다음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할 것이다.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셀사역을 통한 개척교회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먼저 기존 전통교회의 구조와 사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진다.

구역에 대한 이해

구역의 정의와 목적

구역은 교인들이 거주분포를 중심으로 적절히 조직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교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들과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조직적인 목회활동이다.(최정성, 1993:5) 즉 구역은 관리와 교육, 행정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교회의 작은 행정 단위이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한곳을 정해 모이게 하고 성경공부와 예배, 각종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그룹의 기본 구조이다. 구역안에는 구역공과라던지 성경공부 같은 양육과 훈련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의 구역은 그 역할을 잘 이뤄내지 못한다. 그 이유는 전통교회안에 구역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많이 두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역장에 대한 훈련과 양육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즉 구역은 성도들을 관리하고, 친교하는 모임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교회의 필요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또한 구역을 편성할 때에 지역적으로 나누다 보니, 같은 연령대나 같은 직종,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구조를 가지다 보니 구역은 형식적인 모임이 되고 생명력없는 모임이 되고 마는 것이다. 분명한 구역의 목적은 초대교회와 같이 대그룹의 예배와 더불어 소그룹의 예배,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번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는 친교모임이 되고 말았다.

구역조직

조직이란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인간의 협동체를 이룬 형태를 말한다.(최정성, 1993:66) 구역조직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구역조직을 한것이고, 오랜세월 구역은 교회안에 사명을 감당해 왔다. 각 교단의 헌법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모든 교회들이 구역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조직 안에는 여러 형태의 조직들이 있었다. 연령, 지역, 취미, 직장등 다양한 형태의 구역조직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역 조직의 형태는 지역별 조직이다. 각 교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근거로 한 구역에 10여명의 성도들을 배치하여 구역을 조직한 것이다. 그리고 구역에 구역장을 세워 교인들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일을 맡긴 것이다. 이런 형태의 구역조직은 구약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다. 모세가 이드로를 통해 세웠던 부장제도이다. 모세 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 할 수 없었기에 부장들을 세워 가르치고, 인도하고, 재판하는 일까지 맡기게 된것이다. 부장을 세울때에 재주와 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였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때에 혼자 감당하지 않으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의 파송하시며 사역의 역할분담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구역 조직을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는 이유도 그러한 것이다. 목회자 모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을 때 조직을 세우고 일꾼을 세워 사명을 감당하게 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의미의 구역조직이지만 실제적 운영에 있어서는 조직의 구성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구역이 많음을 본다. 구역은 요한 웨슬레의 성화그룹이 속회로 발전하여 다른 교단에서 도입하며 ‘구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배와 말씀 중심의 교제를 위한 초기의 목적처럼 영적인 교제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구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셀에 대한 이해

셀의 정의

셀이란 단어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1978년 집필한 ‘성공적인 구역조직’이라는 책을 헤럴드 호스테틀러가 영어로 출판할 때 ‘Successful home cell group’이란 제목으로 발간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책이 셀에 대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며, 셀이란 구역조직의 영어 번역이다(박홍래, 2003:25). 특히 셀이란 말이 교회성장학자들에 의해 사용된 것은 1980년 조용기 목사의 ‘성공적인 가정 셀그룹’이라는 책에서 사용된 이후로 생각 되어진다.

데이비드 핀텔은 그의 저서에서 “셀이란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구성원 서로간에 지역 공동체를 섬기며 복음화를 위해 소그룹을 이루는 신자들의 유기적 몸이다”(핀텔, 2000:23)라고 정의 하였다.

랄프네이버 박사는 셀을 “교회의 핵심이요 본질로서 소그룹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정에 모여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신자들간의 사랑의 교제와 양육 그리고 서로간의 돌봄과 사역을 시행하는 작은 교회이다.”라고 정의 했다(NCD편집부, 2003:10-11).

그리고 콜롬비아 MCI교회를 담임하는 세자르 카스텔라노스의 정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인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 모이는 그룹이다”(카스텔라노스, 2004:48)라고 정의 했다.

결국 셀은 소그룹으로 모인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속의 교회’로써 돌봄과 양육, 교제, 전도등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작은 교회임을 말하는 것이다. 셀의 한 형태인 가정교회에서는 가정교회안에 재정부장, 선교부장, 전도부장등을 두고 작은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을 보게된다.

셀의 구조와 기능

셀은 리더와 구성원으로 나뉘 수 있다.리더 그룹은 셀리더와 인턴리더로 구성된다. 구성원 그룹은 어린아이, 청년, 아비로 구성된다.

셀모임과 전통구역의 공통점과 상이점

셀과 구역의 외적인 형태의 모습은 공통점과 상이점이 있다.

셀과구역의 상이점을 살펴볼 때에 구역은 지역을 거점으로 같은 생활권의 사람들 위주로 모이는 모임이다.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성경공부를 하고, 새신자들의 교회생활에 대한 안내 등을 하는 모임이다. 따라서 구역모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아니라 대부분의 구역은 기존의 성도들, 특히 모임장소와 근거리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셀모임은 지역과 연령대로 구성이 되기도 하지만 구역만큼 한정 되지는 않는다. 좀더 유연하고 좀더 광범위 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오픈 셀모임은 시간적 장소적 제한에서 좀더 자유롭다. 학기 중에 셀모임이 이뤄지기에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따라서 셀은 좀더 역동적이고 생명력있는 모임이 된다.

그래서 칼조지는 열린모임의 역동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양육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새신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개장하지 않는 소그룹을 내게 보이라. 결단코 그 소그룹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 나는 장담한다.”(쿡, 2001:103)

셀과구역의 공통점은 각모임이 가지는 시간과 진행방법, 소그룹의 형태라는 점이다. 외형적으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구성원이 늘어나게 될 때 분리가 된다는 공통점도 있다. 친교와 말씀과 교제가 있다는 것도 외형적인 공통점이다.

셀과 제자훈련의 공통점과 상이점

셀을 말할 때 제자훈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셀에서의 리더는 제자훈련을 통한 훈련된 일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훈련된 리더는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리더를 세우는 일이다. 리더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은 셀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사역인 것이다. 그래서 조엘 코미스키는 “셀 교회의 성공은 평신도들을 지도자로

바꾸어 놓는데 달려있고 그것이 셀그룹의 폭발적 성공 뒤에 숨어있는 힘이다.”라고 하였다.
(코미스키, 2000:86)

따라서 셀과 제자훈련의 공통점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는 것이다. 평신도를 훈련시켜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셀과 제자훈련의 상이점은 개인적인가 큰그룹을 보는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자훈련을 평신도를 깨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제자훈련의 일차적인 목표는 제자훈련을 받는 대상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성화의 과정을 돕는 훈련인 것이다. 신앙의 성숙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훈련인 것이다. 그러나 셀에서의 양육 프로그램은 개인의 성화와 함께 셀의 번식, 셀의 부흥을 목표로 한다. 믿지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전도의 툴(Tool)을 만들어 주고 그 훈련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히기까지 지속적인 반복훈련을 시킨다. 그런 반복훈련을 통해 열정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자훈련이라고 해서 전도의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제자훈련 때문에 평신도들의 머리만 커졌다고하는, 다시말해 평신도들의 성경의 지식만 늘어나고 행동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랄프 네이버도 “양육중심의 훈련은 경직된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고, 자신의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등한시 하면서 오직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진정한 지도자는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하였다(1999:85).

셀과 가정교회의 공통점과 상이점

셀과 가정교회는 가장 공통점이 많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셀과 가정교회를 혼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정교회는 분명 구역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는 가정교회 존재 형태를 그렇게 말한다. “구역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모은 것이지만 가정교회는 지역에 관계없이 관계성을 토대로 묶은 것이다”(2008:147).

먼저 가정교회의 형태를 보게 되면 가정교회는 환경적, 상황적 요인에 의해 가정교회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교회가 휩박받는 지역의 교회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중국이나 회교권, 북한의 경우 이런 가정교회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소규모의 숫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형태이다. 또 하나는 대그룹안에 소그룹의 가정교회가 존재하는 형태이다. 이는 각각의 독립된 작은 교회를 지향한다. 셀교회와 가정교회의 공통점 중에 하나이다. 각 가정에서 작은교회로의 모임이다. 대그룹에 소속되어 있지만 각각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하나의 분명한 교회이다. 특히 가정교회와 셀교회는 가정이라는 장소적 공통점이 있다. 또 가정의 의미는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비-리더, 청년-인턴, 어린아이-가족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가정을 아버지가 이끌어 가듯이 아비가 리더가 되어 가정교회를, 셀을 이끌어 간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가정에 있는 것처럼, 가정교회나 셀안에도 보살핌을 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 이라던지 장소적 공통점이 가정교회와 셀 사이에 있는 것이다. 반대로 셀과 가정교회의 상이점은 사역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셀교회가 사역지향적이라면 가정교회는 사역보다는 사람을 더 중시한다. 셀교회가 사역에 집중하며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할 때 가정교회는 조금은 더디지만 사람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셀리더나 목자에 대한 위임의 부분도 셀교회 보다는 가정교회가 더 사역 위임을 많이 해주는 모습이다. 대그룹의 통제권이 가정교회보다 셀교회에 더 크게 있음을 보게 된다.

셀과 구역, 제자훈련, 가정교회등의 차이점을 살펴볼 때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셀과 같은 형태이지만 그 차이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셀을 가진 교회이냐, 셀교회이냐의 차이인 것이다. 셀을 가진 교회는 교회 안에 셀의 형태를 가진 소그룹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역, 성경공부 모임, 치료모임, 친목 소그룹등이 그런 것이다. 이런 소그룹들을 셀이라고 부르지만 이런 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셀교회는 아닌 것이다. 셀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셀교회와의

차이점을 로렌스 쿡 목사는 하늘과 땅의 차이, 동쪽과 서쪽이 다른 것과 같이 다르다. 라고 설명한다. 즉 셀교회는 교회조직 자체를 셀형태로 구성하고 셀목회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를 셀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셀교회는 아닌것이다.

성경적 셀에 대한 고찰

셀교회가 추구하는 정신과 셀교회의 구조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셀의 모습, 셀교회의 기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성경적 배경

앞서 셀의 정의와 구조에 대해 그리고 셀과 구역, 셀과 제자훈련, 셀과 가정교회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셀의 성경적 근거와 역사속의 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구약성경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셀 교회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곳은 출애굽기 18:19~22이다. 출애굽의 과정속에서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모든일들을 관여하고 재판을 하다 보니 그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책임을 분담시키는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일꾼들을 세울 것을 권면하는 것이다.

19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22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출18:19~22).

모세는 이드로의 권면을 수용하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십부장을 세워 일과 권한을 위임해주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 셀의 기본형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교회는

목회자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면 각 사람을 목양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부교역자나 간사를 세우는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가 있다. 그럴 때 셀리더의 역할은 각 셀에 속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일이다. 가정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특수한 경우이겠지만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에서는 목회자 대신 목장에서 목자를 중심으로 장례를 치르기도하였다. 이런 분업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울 지혜를 내신 것이고, 오늘날도 복잡 다단한 속에서 목회자를 도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구약시대부터 시작된 셀의 원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복음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신 공동체의 형태는 셀교회의 기초가 되는 소그룹공동체였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의 결과물이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원하는자들을 부르시고 열둘을 세웠는데, 그들에게는 전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던 것이다. 12명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전도와선교, 봉사의 일꾼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12명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집중하여 훈련시키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오천명을 먹이시고 남은 12바구니를 걷은 이들이 12명의 제자들 이었다. 때로는 12명으로 때로는 3명으로 예수님은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 마치 제자훈련과 열린모임(전도소그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사용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몸으로 느끼고 배우게 되었다. 셀안에서 리더들이 인턴이나 셀원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 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

또 다른 셀의 증거를 마태복음 18:15~17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범죄한 자에게 먼저 한사람이 권면하고, 권면을 듣지 않을 때에는 두세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권면하였다. 여기서 하나에서 두 세사람으로 움직이는 것은 셀의 구조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소그룹앞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대그룹을 통한 징계가 있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복음서 안에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마태복음 18:20에서도, “두 세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는 말씀은 대 그룹이 아닌 소수가 모이는 셀 그룹으로 안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숫자의 중요함 보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에는 다양한 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초대교회는 신약시대 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 2:41~47절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전형적인 셀교회의 모습이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들으며,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대그룹의 예배로 성전에서 모이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 서로 음식교제를 나누며, 서로 돌보아주고, 격려해 주는 모습, 그 결과물로 교회는 날마다 믿는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셀사역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다.

빌 백햄은 그의 저서 ‘제2의 종교개혁에서 이와 같이 말한다.

1세기 신약교회는 이러한 이중적인 형태의 공동체로서 기능하였다. ‘모여진’ 상황은 ‘전체교회’로서 대그룹으로 만난 것이며, ‘성전’에서 만난 것이며, 흩어진 상황은 ‘가정교회’로 만난 것이며 셀로 결합되어 ‘가정에서 가정으로’ 옮겨진 것이다(2000:153). 즉, 초대교회는 모이는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두날개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였다는 것을 증거한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의 책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한다.

대집단과 소집단의 교제가 기본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조직이었다. 초대교회의 생활과 증거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계속함으로써,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므로써 유지되었다. 초대교회 생활의 두 가지 초점은 성전과 집이었다(행 5:42) 이것은 증거와 및 증거로 인도하는 생활의 지속을 위한 양식이었다(1997:196).

다시말해 대그룹과 소그룹의 상호보완 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어 교회는 성장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세상가운데 증거 되었다.

서신서

서신서에 나타난 셀교회의 모습은 사도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 증거되고 있다. 사도행전 18:8~20에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석달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하였는데,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일이 생겼다. 그때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두 해동안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것은 사도바울이 따로 세운 제자들을 소그룹을 통해 훈련시키고 준비함으로, 그들을 통해 에베소교회를 중심으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하는 것이다. 소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것은, 소그룹단위의 복음전파가 효과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다수의 전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듯 소그룹의 교육과 훈련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었음을 서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의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그룹으로만 모일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소그룹이 각각의 존재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합하여 지역교회를 형성했음을 고린도후서 1:1~2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사도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흠어져있는 아가야의 모든 성도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와 흠어진 소그룹의 모임이 고린도와 그 근처 지역에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셀에 대한 고찰

종교개혁 이전

역사속에 나타난 셀교회의 모습은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이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져서 소그룹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더하는 셀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콘스탄틴 대제의 회심으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313년 ‘밀라노칙령’으로 인해 수백년간 박해 받아온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다. 그후로부터 로마인은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종교는 존중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밀라노칙령의 최대 수혜자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기독교가 공인되자 교회안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교회는 점점 대형화 되었고, 화려해지기 시작했으며 교회안에 권력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동안 교회로부터 환수했던 재산들을 돌려주기 시작했으며, 사재를 털어 교회를 짓기도 하였다. 황제의 권력에 편승하여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대형화된 건물, 화려한 예배예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325년에는 ‘니케아공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논쟁이 되어온 아리우스파논쟁에서 신성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결정들로 교회는 호랑이등에 날개를 단 것 같은 위세를 떨쳤지만, 결국 그것은 한 날개를 부러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소그룹의 모임들은 사라졌다. 한날개 만으로 교회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비대해지기 시작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세상의 권력에 붙어 교회안의 직분이 세속적인 계급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교황은 황제보다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셀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나 2, 3세기로 넘어오면서 점점 엄격한 구별이 지워지게 되었다(스티븐슨, 2015:50). 그것은 성직의 타락으로 이어졌다.

라토켓(K. S. Latourette)은 말하기를 “제1세기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주장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세기 초엽이

되자마자 성직자들과 평신도 사이의 간격이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2세기 말이 되자 성직자들은 분명히 하나의 분리된 성직자단이 되었는데, 아마도 성직자단이라는 이 명칭은 엄격한 계층 사회인 로마사회에서 로마 행정관들에게 부여된 명칭에서 유래했을 것 같다”고 한다(1997:224). 이런 신분의 구별은 그 시대 이단의 발호로 부터 순수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당위성이 있었지만, 결국 성직자들을 특권층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콘스탄틴 대제 이전의 초대교회는 대그룹으로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과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모임이 함께 존재하였다. 그러나 서기 312년에 교회는 대그룹과 가정소그룹이라는 형태에서 전적으로 특별한 건물에서만 이루어지는 집회로 바뀌는 과정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은 하나의 청중의 개념으로 직접적인 사역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되었다. 평신도들의 능동적 참여가 아니라 강요된 방식으로 예배가 확대되고 이방종교의 사상과 의식들도 쉽게 기독교회에 소개되었다(정일웅, 2000:75-76).

이런 부정적인 변화에 반기를 든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4세기부터 일어난 수도원 운동이 그것이다. 권력화, 대형화 되어가는 교회를 보며 공동체생활을 통해 제도권의 교회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평신도운동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회복과 변화를 열망하던 이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후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작은 변화가 종교개혁 전까지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교개혁 이후

초대교회로의 회복에 대한 열망은 결국 종교개혁으로 표출되었다. 개혁자들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오직 성경에 귀속된다고 하는 정신을 부르짖었다. 이들은 교리적 개혁뿐 아니라 잘못된 의식과 예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외쳤다는 사실이다(정일웅, 1999:282).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은 칼빈에 의해 다듬어지고 체계화 되기 시작했다.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무너졌던 예배와 의식의 개혁을 시작했던

것이다. 루터는 미사와 더불어 현대적인 예배, 소그룹 예배의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 초대교회의 각 가정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초대교회 셀모임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다. 외식으로 가득찬 예배의 변화와 더불어 교리와 교회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싶었다. 이렇듯 루터는 초대교회의 한낱개였던 가정 셀모임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루터는 그의 생각대로 개혁을 시도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코미스키의에 의하면, 루터가 생각했을 때 교회안의 다른 성격의 공동체가 있을 경우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당시 급진 재세례파 이단들의 발호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교리의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소그룹의 중요성과 소그룹 예배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단으로 인한 위험성을 더 우려하였기에 두날개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야콥 스페너(Jacob. Spener)는 루터의 개혁은 교리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건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라고 평가했다(슈투플러, 1993:380) 초대교회 소그룹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스페너는 경건한 삶에 대한 방편으로서 가정에서의 셀모임을 지향했고 실천에 옮겼지만 기존의 루터교회로부터 반대를 받았고, 결국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시의회는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했으며, 그들의 모임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가정 소그룹의 명맥은 진젠도르프와 그가 이끄는 모라비안에 의해 이어지게 되었다.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땅에 헤른후트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와 선교를 동시에 추구하는 작은 소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썼다.

이러한 소그룹 운동은 요한 웨슬레에 의해 결실을 맺게 된다. 요한 웨슬레는 1703년 6월13일 사무엘 웨슬레 목사의 15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신실한 어머니의 기도와 보살핌 아래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후에 옥스포드를 졸업하고 22세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그런 좋은 가문에서 자란 요한 웨슬레이지만 그를 변화 시킨건 런던의 작은 모임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를 읽고 나서였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다는 것과 회심의 중요성에 대해 소그룹을 통해 깨닫고 즉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가 살던 17-18세기의 영국사회는 타락과 무질서가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귀족과 지도층들은 향락과 사치에 빠져 갖은 음란한 행위들을 하였고, 서민들은 실직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날마다 싸움과 도박을 일삼았다. 사회가 그렇다 보니 종교계 역시 사람들에게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은 요한 웨슬레는 회심한 사람들을 속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것은 그가 모라비안들의 헤른후트에서 보았던 것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스나이더, 1995:55). 웨슬리는 소그룹으로서의 교회를 지향했으며 감리교 속회의 창시자로서 18세기 영국 감리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 이후 1760년경 미국의 감리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요한 웨슬레의 속회운동을 시작으로 복음운동이 전개 되었으며, 미국 감리교회가 조직되게 되었다. 요한 웨슬레의 속회 운동은 그가 그 속회를 분명한 교회로 인식함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같은 역할을 한 것이었다.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초대교회를 통해 나타난 가정에서의 소그룹모임은 역사 속에서 검증을 거쳐 교회의 부흥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요한 웨슬레를 통해 영국에서 꽃피운 셀모임은 한국에 들어온 감리교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한국 감리교회의 부흥은 속회를 통해 일어났고, 196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되었다. 또한 한국의 장로교회 역시 구역회제도를 세우고 구역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친교와 교회교육의 활성화를 이루었다.

교회의 역사는 말하고 있다.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날개의 예배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대그룹과 소그룹의 조화가 건강한교회와 건강한 성도들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암울한 시대상 가운데 시대를 관통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뤄낸 것은, 큰 부흥집회나 대규모의 전도집회가 아니라 각 가정이나 직장 소그룹으로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내였던 작은 소그룹모임에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건강하게 자라난 소그룹이 있어야 건강한 대그룹의 모임이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개혁 가운데 성장을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제 3 장

사례연구(풍성한교회-부산 연제구 소재)

셀사역으로 성장한 풍성한교회

‘두날개 양육시스템’으로 건강한 셀교회를 꿈꾸며 달려가고 있는 풍성한 교회(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91)의 사례를 소개하며 풍성한 교회의 사역정신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시 연제구에 소재한 풍성한 교회는 두날개 양육시스템을 시작한 교회이다. 처음에는 D12 양육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다가 현재에는 두날개 양육시스템으로 명칭변경이 되었다. 필자는 부산 풍성한 교회가 상가교회에 있었던 시절부터 교회를 방문하여 셀사역의 시스템과 정신을 배워보고자 노력하였다. 예배를 함께 드리며 느낀 것은 예배의 형태나 순서등 외적인 요인들은 기존의 교회들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온누리교회나 사랑의교회와 같이 예배사역을 잘 준비한 교회들에 비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느꼈다. 그러나 계속해서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풍성한교회만의 독특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김성곤 목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스피릿이었다. 사역정신, 풍성한 교회가 꿈꾸고 한마음, 한목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사역정신이였다.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임재와 열정이 있는 ‘축제예배’와 열린모임으로 모이는 ‘소그룹모임’이다. 그 두날개의 사역정신이 현재의 풍성한교회를 만들게 된 것이다.

풍성한교회는 셀사역을 통한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교회이며, 셀교회로서 셀교회가 강조하는 3가지 정신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교회이다. NCD 국제본부 총재인 슈바르츠는 풍성한교회는 자연적 교회성장의 모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인정하였다(김성곤, 2005:20).

풍성한 교회의 사역정신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복종하는 정신

풍성한 교회는 양육과 훈련중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계속해서 나누도록하고 있다. 그것은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임을 양육대상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반에서는 중심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강조한다.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김성곤, 2005:95). 제자대학 1학기 제자의 삶 제3주차에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한다. 이 강의는 1학기 강의 중 가장 중심되는 강의이며,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하도록 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살도록 강의한다. 이처럼 풍성한 교회의 사역의 정신은 무익한 종이 순종하고 충성하고도 주인을 향하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철저히 나는 배제되어지는 사역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기존 교회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공로주의를 깨뜨리고자 하는 노력이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풍성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함으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컨퍼런스에 참석해보면 도우미로 일하는 모든 교인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웃음을 지으며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된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복종하는 사역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세상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확신과 순종으로 살아가야한다. 이전까지의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으로 고백하는 삶이다. 그래서 풍성한교회의 교인들은 한주간의 삶가운데 주님의 주임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물들을 셀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금요철야 예배시 간증을 통해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게 된다. 이런 주재권에 대한 복종이 풍성한 교회를 진정한 셀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핸들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자신은 뒷자석에 앉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김성곤, 2005:108).

또한 풍성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나눔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안에서의 나눔은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나눔을 통해 성도들은 셀그룹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셀가족모임은 가족 같은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 육신의 혈육보다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나눔 가운데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진정한 나눔이 아니다. 따라서 나눔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복종하는 사역정신이다.

전 성도의 사역자화

풍성한 교회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에서 10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날개 사역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데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김성곤 목사는 강의를 통해 평신도를 자신의 어깨 위에 세우고자 훈련시킨다고 한다. 즉 담임목회자 보다 뛰어난 영성과 사역정신을 가진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 모두가 셀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강한 훈련을 시키고 있다. 한국교회의 평균 평신도 사역자화는 10~20퍼센트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을 탈피하지 않고는 건강한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다. 성도가 구경꾼이고, 방관자가 되어서는 교회는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풍성한 교회는 은사배치 사역을 통해 전 성도의 사역자화를 꾀하고 있다. 전통교회의 10퍼센트 미만의 사역자퍼센트를 실질적 70퍼센트 이상이 사역하는 교회로 만든것이다. 이런 전성도의 사역자화 정신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그 결과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셀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성도들이 감격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가족공동체로서의 교회본질 회복정신

풍성한 교회는 NCD 건강지수 평균 10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사랑의 관계’가 119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관심이 많다는 증거인 것이다. 셀모임을 통해 서로 만나 교제하고, 차나 식사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랑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열린모임인 ‘전도소그룹’을 통해 하나의 목표인 전도를 향해 한마음, 한목소리로 나가다 보니 모임은 더 끈끈한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예수 생명의 가족모임을 통해 가족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회복하려는 사역 정신이 풍성한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역사적 고찰을 통해 보았던 것 처럼, 중세시대 무너졌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꿈을 풍성한교회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대그룹의 예배와 역동적 셀그룹의 회복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다.

두 날개 양육시스템 소개

풍성한 교회는 두날개양육시스템을 가진 교회이다. 대그룹과 소그룹의 조화를 이루어 한날개가 아닌 두개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교회이다. 두날개 양육시스템은 전도, 정착, 양육, 제자훈련, 재생산을 통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토털시스템이다. 특별히 건강한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성도를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사역자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풍성한 교회는 NCD 건강지수 107점을 받은 교회로 두날개양육시스템으로 계속해서 건강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있다.

풍성한 교회의 양육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살펴보도록하겠다.



<그림 1>

두날개양육시스템

1 단계: 전도

열린모임은 풍성한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모임이다. 두날개시스템 안에 열린모임이 없다면 그것은 연료없는 차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풍성한 교회 교인의 70퍼센트는 열린모임을 통해 전도되었다. 열린모임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3~5명이 팀을 이루어 매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모임을 갖는다. 열린모임은 12주로 진행되며 첫주는 7명의 대신자를정하고, 둘째주는 7명의 대신자를 놓고 기도 한 후에 꼭 전도할 3명의 베스트를 정한다. 그리고 열린모임카드에 3명의 베스트 이름을 기록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3주~8주차까지는 관계맺기를 하는데, 차마시기, 식사하기, 간단한선물주기, 베스트의 필요채우기, 베스트섬기기, 베스트와 식사하고 감동적인 선물하기를 순서대로 하게 된다. 그리고 베스트 중에 교회를 경험해 보았거나, 낙심했던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은 5주차부터 열린모임에 참석시킨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12주차 초청주일에 교회로 초청하여 회심하도록 한다. 교회는 초청주일을 초청예배로 준비하여 새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도운다.

2단계: 정착

풍성한교회는 새가족 섬김이 사역을 통해 새신자들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섬김이 사역은 정착사역이다. 정착은 새가족이 양육으로 들어가는 가교 역할을 한다. 새가족은 처음 교회에 받을 디딤,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성경, 찬송, 예배의식등등 처음 접하는 것들은 사람을 주눅들게 만든다. 그래서 풍성한교회에서는 4주간의 섬김이 사역을 통해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가족이 예배를 참석하고 등록카드를 쓰게되면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섬김이를 만나게 된다. 그자리에는 담임목사, 전도자, 셀리더, 섬김이가 참석한다. 따라서 처음 교회에 온 새신자라도 최소한 아는 사람 3명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섬김이 사역의 첫 번째는 새신자를 집에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주일예배시간에 맞춰 집앞에서 새신자를 모시고 온다. 그것이 새신자가 부담스러워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생략하고 교회입구에서 기다릴 수도 있다.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섬김이는 조용한 장소에서 새가족과 행복안내서 1과를 나눈다. 행복안내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를 3명 소개해 주고 주중에는 친필로 편지를 써서 새가족에게 보낸다. 주중에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하고 새가족 섬김이 주간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하면 첫 주 사역이 끝난다. 2주차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섬김을 하고 행복안내서2과를 나눈다. 특별히 새가족에게 담임목사의 새가족반 수료 초청편지를 전달해 준다. 3주차에도 동일한 사역을 하고, 행복안내서 3과를 나눈 뒤, 새가족섬김이 사역평가서를 사무실로 제출한다. 4주차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수료축하선물을 준비하여 예배 후 새가족환영실로 인도한다. 담임목사는 행복안내서4과를 통해 교회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새가족반 수료를 선포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인서약서와 양육반 지원서를 쓰게하면 새가족 섬김이 사역은 마무리가 된다. 열린모임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Open셀이지만, Close셀인 셀가족 모임은 새가족반 수료를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다. 새가족수료식을 마치면 셀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얻고 교회의 한가족이 되는 것이다. 살피본바와 같이 새가족 섬김이 사역은 신앙이 오래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섬김이학교를 수료하고 교회 출석한지 3개월만 지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정착사역을 통해 전성도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3단계: 양육

풍성한교회의 양육반은 전체 12주 과정으로 되어있다. 양육반을 들어가기에 앞서 1일 수양회를 통해 내면의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파하게 된다. 그것을 전인적 치유수양회라고 한다. 이 수양회를 통해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회개와 새로운 출발에 대한 다짐을 하게된다. 전인적 치유수양회는 토요일 하루 정한 날에 가능하면 교회외의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 전인적 치유수양회를 마치면 양육반 12주 과정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양육반 개강수련회가 전인적치유수양회인것이다. 양육반에 앞서 전인적 치유수양회를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면의 견고한 진과 쓴뿌리 때문이다.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양육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1일 수양회를 통해 영육간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양육반에서는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시간이다. 첫주에는 서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인생의 여정가운데 행복했던 일 힘들었던 일들을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간다. 특히 그자리에서는 먼저 강사가 자신을 오픈함으로 새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돕는다. 2주차부터는 구원의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을 순서대로 배운다. 이 4가지의 확신을 바로 심어주어야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주째에는 은사발견세미나를 한다. 각 양육반들을 한곳에 모아 함께 강의를 진행한다. 은사발견세미나를 통해 각각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에맞게 사역을 배치하여 사역을 기쁨을 맛보게 한다. 12주차에는 새가족 섬김이 학교를 한다. 마찬가지로 각 양육반을 한곳에 모아 함께 강의를 진행한다. 새가족

섬김이학교는 새가족이 아니라 섬김이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섬김이사역을 통해 새가족을 교회에 잘 정착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새가족 섬김이학교의 초점은 섬김이다. 섬김이사역을 통해 섬김이의 신앙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기대한다.

4~6 단계 / 세계비전제자대학: 총 3 학기

양육반을 수료한 사람은 세계비전제자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양육반 과정 가운데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제자대학은 훈련의 과정으로서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양식의 변화를 기대한다. 강한 훈련을 통해 강한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변화되어야 한다. 각 학기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받게 된다. 제자대학 1학기의 목표는 열린모임의 인도자를 만드는 것이다. 제자로의 부르심을 깨달아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간다. 제자의 삶을 공부하다보면 이제까지 내가 잘 살고 있었다는 착각에서 나를 바로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는 착각을 버리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나는 그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노력하게 된다. 제자대학 제 2학기의 목표는 셀모임의 리더인 셀리더로 세우는 것이다. 2학기는 군사훈련으로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 군사로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다.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포기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는 순종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셀모임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인도법을 배우게 되고, 셀모임에서 전할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 제 3학기 재생산의 삶의 목표는 셀그룹의 목적인 ‘재생산’을 할수 있는 재생산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 삼는 삶을 살도록 훈련한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사과 나무이듯이 셀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셀임을 알아 계속해서 또 다른 셀을 번식해 나갈 수 있는 재생산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2학기 군사훈련에 앞서 개강수련회를 하는데 그것이 리더수양회이다. 리더수양회는 전인적 치유수양회와 마찬가지로 1일 수양회로 토요일 한장소를 정해

실시한다. 리더수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셀리더로 부르셨음을 확신케 한다. 때로는 이해가 안되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를 만드는 것이다.

제 3학기는 재생산 훈련으로 처음에는 사도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시켰었다.

이후 재생산훈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 중보기도학교

중보기도학교는 기도훈련을 통해 교회의 중보기도자로 세워 기도의 용사로 사역하게 한다. 제자대학 1학기 이상 수료한 사람은 누구나 중보기도학교를 받을 수 있다.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법과 통성기도, 목적기도, 중보기도, 치유기도 등등 기도의 여러 형태를 배우고 실습하게 된다. 중보기도는 교회 부흥의 원천이다.

제 4 장

셀사역을 통한 강변주사랑 교회개척

비전

강변주사랑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셀사역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전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에게 문화적충격을 최소화하며 교회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예배의 형태라던지, 심방, 교제등 모든 부분들이 전통교회와는 다르기에 그것을 이해시키고 교육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개척을 준비하며 성도들과 사역과 비전에 대한 공유를 시작했다. 아래의 내용들은 성도들과 개척 초기에 함께 나누었던 브리핑의 내용들이다.

강변주사랑교회 비전과 목표

강변주사랑교회는 경배와찬양의 2기 사역인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개척의 비전을 품고 개척된 경배와찬양 1호 교회이다. 2013년에는 개척 원년으로 온 교회가 하나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선교비전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다. 강변주사랑교회는 제자훈련과 건강한 셀을 통한 평신도 사역이 모토이다. 거기에 경배와찬양의 영성과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사모하는 교회이다. 훈련과 양육을 통해 이 땅의 시대사조를 거스를 수 있는 교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2013년 표어: “건강한 교회 하나되는 교회”**

강변주사랑교회 사명 선언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되어 2020 세계비전을 이루는 예수생명 공동체”

2020 세계비전:

첫째, 우리는 2020 세계비전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행 2:42).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건강한 공동체는 성도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삶의 예배의 현장에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공동체이다. 이전까지의 삶이 행복, 잘사는 것, 내가정, 내가족만을 생각했던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복음전파에 삶을 내어 드리겠노라고 헌신하는 모습이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본질의 모습이다. 그래서 강변주사랑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며, 상호책임지며,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서로 섬기며 조화를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2020의 세계비전을 따라 200명의 셀리더를 세우고,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이뤄가야 한다.

우리는 2020세계비전을 D12비전으로 성취해 나갈 것이다. D12비전은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전파의 비전을 위임 하셨듯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 역시 12명의 제자를 내 어깨 위에 세우는 비전이다.

둘째, 우리는 2020 세계비전으로 이 땅을 변화시킨다(마 9:35~38).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것이다.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피하는 이웃들을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셨다. 죄로 물든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 우리는 시대의 일꾼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지역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교회는 지역 속에서 살아나야 한다.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200명의 셀리더와 20명의 선교사 파송은 지역을 변화시킬 때 성취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교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12명을 제자 삼는 D12 비전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셋째, 우리는 2020 세계비전으로 열방을 변화시킨다(마 28:18~20).

마태복음 28:18~20의 말씀은 강변주사랑교회가 개척될 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비전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강변주사랑교회를 부르셨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비전이다. 이 역시 D12 비전으로 성취될 것이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각 나라와 족속들을 제자 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신 것처럼, 강변주사랑교회도 2020 세계비전으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속에 나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강변주사랑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계획이다. 우리는 일차 목표로 2020년까지 20명의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2020 세계비전이다.

강변주사랑교회의 8대 목표:

필요 중심적 전도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땅 끝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구들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역마다 열린 모임을 열어 관계 전도를 통한 복음전파에 힘쓰고 있다. 열린모임은 말 그대로 열린모임이다.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초청할 수 있다. 먼저 2주는 기도하고, 6주간 베스트와 관계를 맺으며, 4주는 열린모임에 초대하고, 마지막 12주 초청잔치(봄새생명축제, 가을귀빈초청잔치)에는 교회로 초청을 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은사가 있다. 말씀을 잘 하는 분이 있고, 섬김을 잘하는 분, 음식을 잘하는 분,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분 등등 열린모임 안에서는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초청된 사람은 직접적으로 초청한 사람의 전도가 아니라 3~5명의 열린모임 식구가 함께 한 전도가 되기에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역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다.

영감 있는 예배

초대교회에는 두날개의 예배가 있었다. 대그룹의 예배와 가정에서 드려진 소그룹의 예배이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작은 소그룹의 예배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 대그룹의 예배는 축제로 드러지는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강변주사랑교회는 챔버팀, 성임팀, 오케스트라가 인도자의 지휘아래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를 드린다. 아직은 작은 교회이지만 이 사역을 위해 매주 토요일훈련으로 훈련받고 아이들을 예배의 도구로 드러지도록 준비시킨다. 매주 토요일 그레이스 홀(광장동 소재)에서 자녀예배예술 학교를 열고, 그곳에서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를 전문 선생님들을 통해 배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소망하며 기도하셨을 때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셨다.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을 통해 아이들은 신앙의 성장과 예배의 도구로 준비되는 경험을 하게된다. 그리고 먼저 준비된 자녀들은 예배를 섬기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도구로 드러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진정으로 드러지는 영감있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강변주사랑교회는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 특별히 경배와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과 높여드리는 준비가 된 교회이다. 경배와찬양의 영성을 통한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강변주사랑 교회이다.

하나되는 교제

강변주사랑교회는 교제와 친목이 있는 교회이다. 매년 1박 2일 행사를 통해 성도간의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경배와찬양의 여름사역을 마치고 온성도들이 함께 토~일 양일간 날짜를 정해 1박 2일의 야외예배를 드리게 된다. 처음 교회에 나와 어색하던 사람들도 1박 2일을 다녀오게 되면 성도들간의 친밀감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함께 자고 식사를 준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5월에 하는 맛자랑 멋자랑 행사(음식품평회/각 목장별로 준비한다.)를 통해 셀의 화합을 도모하며, 효도관광을 통해 어르신들을 섬기는 섬김을 기쁨을 맛보게 한다.

전인적인 셀그룹(목장)

강변주사랑교회의 셀그룹은 목장모임이다. 이것은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셀 형태를 가져온 것이다. 강변주사랑교회에는 현재 8개의 목장이 있다. 각 목장은 목장의 형편에 맞게 주일이나 평일을 정해 목장 모임을 한다. 목장 나눔을 통해 한주간의 은혜와 말씀을 나눈다. 목자에게는 목장 나눔지가 주어지고, 그 나눔지에는 지난 주일 말씀 요약과 주일말씀을 삶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질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목자는 목장식구들과 나눔을 하고 각 사람의 질문지를 다시 교회로 제출하게 된다. 담임목사는 그 목장나눔지를 읽고 코멘트를 달아서 본인에게 다음 주일 돌려준다. 양방향의 소통을 통해 목사는 성도들을 신앙의 상태를 파악하고, 성도는 목회자의 목회적 돌봄을 받게 된다. 목장에서의 나눔은 비밀이 보장되며 목장 식구들은 깊은 나눔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다. 목장에서 성도들은 진정한 가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목장에서는 양육과 훈련을 격려하여 건강한 평신도 사역자로 자라가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앞으로 목장은 하나의 선교지를 정해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공동체로 만들것이다. 2019년부터 목장의 명칭을 개명하며 하나의 목장이 하나의 선교지를 세워가는 사역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목장은 하나의 작은 교회로 예배와 선교,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전인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열정적인 영성

강변주사랑교회는 열정이 있는 교회이다. 성도들은 각 예배와 모임을 통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 특별히 매주 목요모임과 경배와찬양학교를 통해 감격가운데 드러지는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새해에 드러지는 세이레특별새벽기도회와 연말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열정적인 영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경배와찬양 목요모임은 우리교회만의 특별한 예배 시간이다. 전통교회에서 하고 있는 철야를 대체하여 본인이 말씀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경배와찬양의 목요모임을 통해 성도들은 기도와 은혜의 시간들을 체험한다. 목요모임은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에서 드러진다. 본 교회

성도들이 다른교회의 예배당에서 매주 모임을 가지는 것도 전통교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성도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열정적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요기도회와 경배와찬양 목요모임이 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

강변주사랑교회의 강력한 훈련은 제자대학 훈련이다. 새가족반, 양육반을 거치고 나면 제자대학은 1학기에서 3학기까지 훈련을 받게 된다. 두날개에서는 1년에 3학기를 마치지만, 강변주사랑교회에서는 1년 6개월에 걸쳐 훈련을 마치게된다. 일년에 두 번의 훈련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도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한 목양의 방법이다. 목자는 3학기를 반드시 졸업해야하고, 각 사역마다 수료학기의 단계가 정해지게 된다. 훈련은 담임목사와 하게 되고 훈련을 통해 배출된 평신도 사역자들은 교회 곳곳에서 은사배치에 따라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은사 중심적 사역

강변주사랑교회에서는 각각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섬기게 된다. 은사배치는 교역자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은사배치세미나는 양육반 3주차에 실시하게 된다. 각 사람은 은사발견을 통해 각각의 은사를 파악하고, 결과물을 교역자실로 제출한 후에, 각 학기에 맞는 사역을 맡게 된다. 은사를 따라 사역할 때 진정한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세계비전20 선교

강변 주사랑교회는 세계를 품은 교회이다. 20명의 선교사를 세계곳곳에 파송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리란 약속대로 이땅가운데 속히 임할것을 소망하고 있다. 강변주사랑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선교에 생명을 건 교회 였다. 개척과 동시에 선교헌금을 책정하여 미자립교회 때부터 선교비를 지출하였다. 현재 매달 약100만원 이상의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다(2018년 현재 1명의 선교사 협동파송과 4명의 협력선교, 1곳의 기관선교 총 6곳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강변 주사랑교회 목장의 정의

강변주사랑교회의 목장은 주안에서 하나됨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곳이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전도와 정착과 양육과 훈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결국은 또 하나의 목장을 번식하는 2020세계비전을 이루는 가족모임이다.

목장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강변주사랑교회의 목장은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다. 예수님은 목장의 주인이시며 주체이시다. 따라서 목장에서는 모든것의 주제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말하며, 예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야 한다. 그럴 때 목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목장은 사교모임이 아니다. 목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며,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다.

목장은 자라나는 공동체

목장은 예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곳이다. 목장을 통해 열린모임이 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된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곳이다.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공동체이다. 목장의 방향성은 전도와 성장이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목장안에서 자라나고, 전도자들 또한 믿음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다. 따라서 목장은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살아움직이는 유기체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2020 세계비전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

목장은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예수 생명으로 하나된 가족공동체이다. 가족은 서로를 책임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어준다. 목장은 진정한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 가족처럼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럴때 목장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 힘으로 2020세계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가족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다.

2013년 대그룹 축제(예배) 및 활동

예배의 여러 형태와 내용

a) 주일오전예배(11:00) / 주일오후나눔(오후 2시) - 추후에 십자가의 길 예배로 드러질 예정이다. 십자가의길 예배는 경배와찬양의 영성을 통한 사역자, 헌신자들의 예배이다.

셀교회의 대그룹날개는 축제의 예배이다. 한 주간 흠어져 삶의 예배로 드러진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축제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매 주일 11시 모든 공동체가 예배당에 모여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 안에는 감격과 회복과 감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생명력있는 말씀을 통해 회심과 결단의 시간을 갖는다. 그렇기에 강변주사랑교회 예배는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으며, 가슴 벅찬 감동이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예배이다.

b) 수요일 예배(매주 수요일 저녁 7:30)

주일 축제예배 후 삼일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강변주사랑교회는 금요철야를 경배와찬양 목요모임으로 대신하기에 수요일예배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 한다. 강해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고, 합심기도로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는 시간이다.

c) 목요모임(매주 목요일 저녁 6:30) - 온누리교회 본당

경배와찬양의 목요모임은 잃어버린 예배자를 찾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한사람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매주 목요일 6시 30분에서 10시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다. 특별히 마지막 만국을향한 기도로 선교단체와 세계열방을 마음에 품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한다.

d) 새벽 기도회(5:00 월-목)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새벽기도회는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며, 새벽 중보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연중 4차례의 특별새벽기도회(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새가족초청주일을 준비하는 특별새벽기도회, 연말특별새벽 기도회)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강변주사랑교회의 새벽예배가 목요일까지인 이유는 목요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면 12시가 넘기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에 기도하며 영성관리를 한다.

교회성장을 위한 교회활동 및 각종 모임

열린모임(12주, 3, 9월 시작) 교재: 열린모임 실행1,2

강변주사랑교회의 열린모임은 풍성한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핵심적인 모임이다. 열린모임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매년 3월, 9월 두번 실시하며 각 목장별로 3~5명이 팀을 이루어 매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모임을 갖는다. 열린모임은 12주로 진행되며 첫주는 7명의 대신자를정하고, 둘째주는 7명의 대신자를 놓고 기도 한 후에 꼭 전도할 3명의 베스트를 정한다. 그리고 열린모임카드에 3명의 베스트 이름을 기록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각 열린모임의 베스트는 교회로 명단을 제출한다. 교회는베스트 명단을 취합하여 함께 공예배나 모임을 통해 기도한다. 3주~8주차까지는 관계 맺기를 하는데, 차마시기, 식사하기, 간단한선물주기, 베스트의 필요채우기, 베스트섬기기, 베스트와 식사하고 감동적인 선물하기를 순서대로 하게 된다. 관계 맺기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되어 새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베스트 중에 교회를 경험해 보았거나, 낙심했던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은 5주차부터 열린모임에 참석시킨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12주차 초청주일에 교회로 초청하여 회심하도록 한다. 교회는 초청주일을 초청예배로 준비하여 새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도운다. 열린모임은 새가족이 찾아오든지 안오든지 상관없이 계속 열어야 한다. 열린모임을 통해 전도의 습관이 성도들의 삶에 녹아지도록 한다.

새 가족 섬김이 사역(4주) 교재: 새가족섬김이학교

새가족 섬김이 사역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양육반 3주차에 섬김이 학교를 하며, 섬김이학교를 수료한 사람은 누구나 섬김이 사역을 할 수 있다. 섬김이 사역은 4주간 하며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이 교회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교재 : '새가족 행복 안내서' 1~4과 / 4주째는 담임목사와 만남을 갖고 양육반에 등록하도록 한다.

양육반(정해진 시간) 교재: 양육의 기쁨

강변주사랑교회 양육반은 총12주 과정으로 전인적치유수양회를 통해 내면의 쓴 뿌리와 견고한 진을 파한 사람들을 좋은 토양 위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과정이다. 교재인 양육의 기쁨에는 4가지의 중요한 확신이 들어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양육은 아비된 심정으로 가르치며, 탈락되는 이들이 없이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양육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다.

제자훈련(정해진 시간) 교재: 제자의 삶

양육반을 수료한 사람은 제자대학 입학이 허가 되며, 제자훈련에 들어가게 된다. 제자대학 1학기는 열린모임의 인도자를 만드는 과정으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확신케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자대학1학기를 마치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린모임의 리더로 일하게 된다. 제자대학 1학기 학생들은 열린모임이 필수이다.

군사훈련(정해진 시간) 교재: 군사의 삶I,II

제자대학1학기를 마치면 제자대학 2학기 군사의 삶을 준비한다. 제자대학 2학기는 리더수양회로 시작되는데 2학기 개강수련회가 리더수양회이다. 군사의 삶은 부르신자를 기쁘시게하며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가치관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리더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군사로 세워지도록 강한 훈련을 시키게 된다.

재생산훈련(정해진 시간) 교재: 재생산의 삶I,II

마지막 3학기 졸업과정은 재생산훈련이다. 셀그룹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셀그룹이다. 제자훈련의 마지막은 또 다른 셀그룹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세계비전을 공유하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3학기를 마치게 되면 각 지역과 직장, 가정으로 돌아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중보기도학교(정해진 시간) *교재: 중보기도학교

***대상: 1학기 제자훈련이상 수료생**

-매주 정해진 시간에 교회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 지금은 수요일예배 마치는 시간을 중보기도 시간으로 잡아 구체적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

셀가족 모임[매주 목장 나눔지]

매주 한주간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자신의 삶을 목장 식구들과 나누며 한가족됨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한주간의 삶 나눔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중보기도해주고, 병든자, 어려움을 만난 자들은 함께 돕고 기도해주게 된다. 그래서 목장안에서 전도와 정착, 양육과 제자훈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2020 세계비전을 이루는 예수 생명의 가족모임이다.

리더반 모임[주일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장소: 본당 *대상: 셀리더, 열린모임인도자

담임목사와 리더들이 열린모임과 목장 모임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리더들은 지난 주간의 목장모임을 보고하고, 다음주 열린모임 교재 점검과 목장 나눔지를 점검한 후 서로 기도하고 목장의 필요들은 나누며 중보기도하는 시간이다.

교역자회의[매주 토요일 기도모임 후]*장소:
경찬본부

교역자들이 본부사무실에 모여 교회와 경배와찬양 사역의 전반적인 일정을 잡고 사역의 혼선이 없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다.

강변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셀사역의 이해 및 상황분석

2012년 2월 12일 강변주사랑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멤버는 8명 이었다. 개척초기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사역을 하며 함께 하였던 목회자 2가정을 제외하고 우리 식구(부부, 자녀 4명) 6명을 제외하면 2명의 성도가 있었다. 5년여의 시간이 흘러 지금은 약 7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물론 5년에 70명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폭발적인 성장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을 보게되면 지하예배당의 도시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성장케 하신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교회에 대한 꿈을 우리교회에 주신것이다. 강변주사랑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다양했다.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도 있었고, 직분을 맡았던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개척을 하고 전도를 통해 등록된 전혀 예수를 모르는 성도들이 가장 많았다. 개중에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큰 교회를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듯 셀사역을 경험한 이들이나, 전혀 셀사역을 모르는 이들이 함께 양육받고 훈련을 받으며 5년여를 달려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직 및 각 부서에 배치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겠다. 다음의 설문지는 성도들의 셀사역 에대한 생각과 평가를 위해 작성한 설문지이다. 이 질문을 토대로 셀사역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해 볼것이고, 성도들의 진솔한 대답을 통해 교회성장의 요인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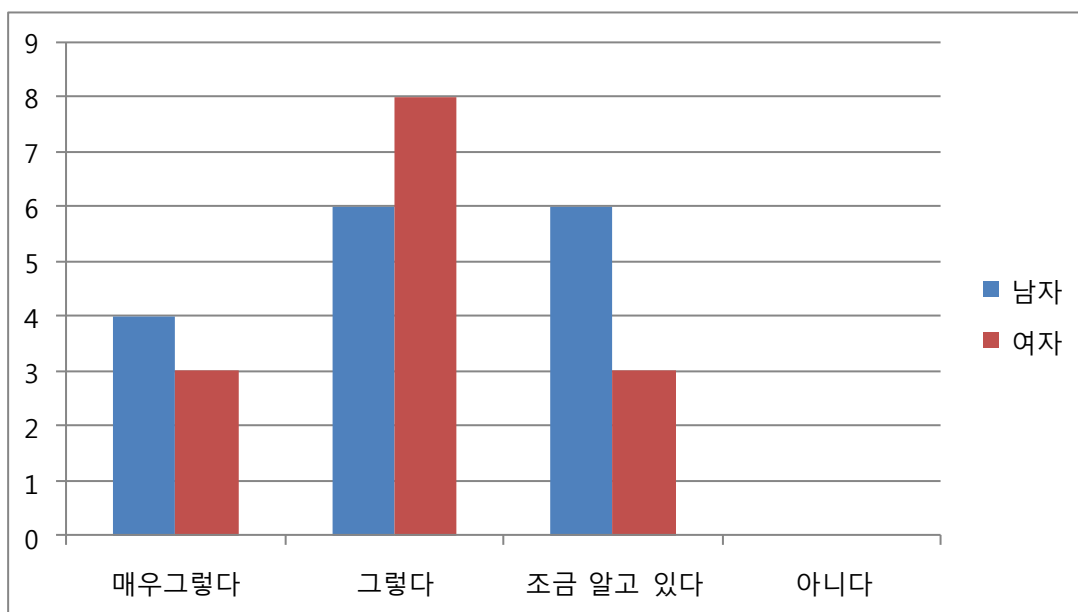
다음은 강변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이다.

<설문지>

1. 나는 전통교회와 셀교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조금 알고 있다 ④아니다
2. 우리교회가 셀교회로 사역할 때 당신의 의견은?
①적극 찬성이다 ②찬성이다 ③어떤 형태이든 괜찮다 ④반대한다
3. 반대한다면 어떤 의견에서 반대하는지 써주세요.(2번 문항에서 4번을 선택한
답해 주세요.) ()
- 예)전통교회로 남았으면 좋겠다.
4. 셀교회의 셀에서의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담임목사 ②셀리더 ③교인들 ④인턴
5. 셀교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두 골라주세요.
①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②소그룹이 활성화 된다
③개인의 달란트를 사용할 기회가 된다 ④성도 개인의 시간이 많아진다
⑤성경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6. 셀교회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두 골라주세요.
①셀리더가 탈진하기 쉽다 ②셀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③셀의 친화력이 높아진다 ④진짜 가족같은 느낌을 받는다
7.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써 셀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는가?
8. 셀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아니다 ④매우 아니다
9.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말해 주세요.
()
10. 셀교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표 1>

나는 전통교회와 셀교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전통교회와 셀교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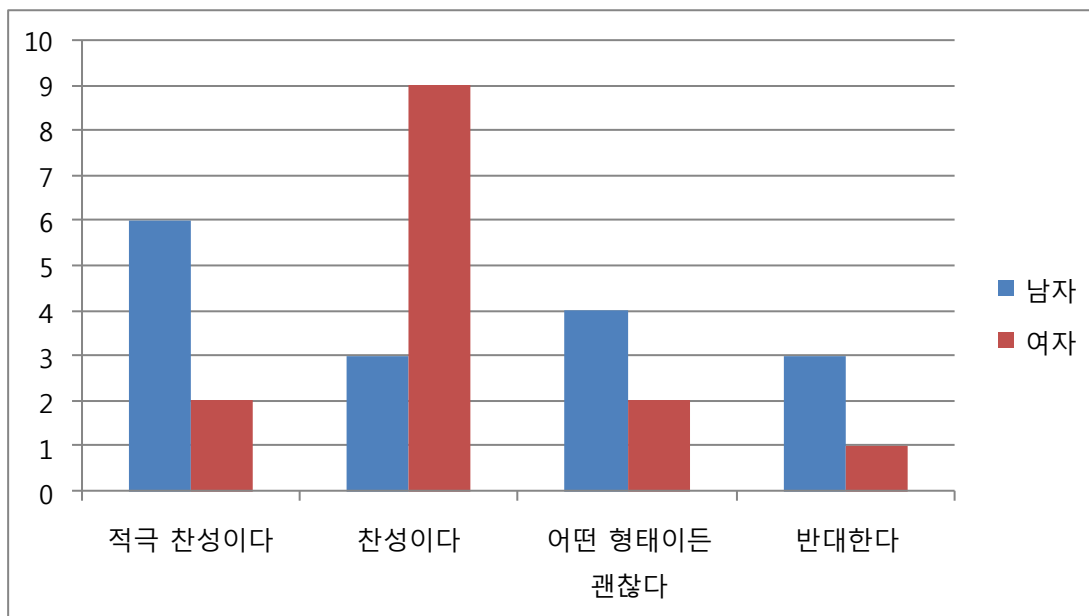
첫번째 질문인 ‘나는 전통교회와 셀교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에서 30명의 설문자에 대한 답변 중 ‘매우 그렇다’는 7명(23.3%), ‘그렇다’는 14명(46.6%), ‘조금 알고있다’는 9명(30%) 이었다. ‘아니다’ 즉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한명도 없었다. 이 설문 조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약 5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조사를 하였기에 성도들의 셀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두가 셀과 전통교회를 구분할 수 있고, 셀교회의 목적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셀은 구역이나 제자훈련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가깝다면 그것은 가정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그것은 선행연구 고찰에서 셀의 구조에 대해 연구하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설문자의 70퍼센트가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 진정한 가족공동체로서의 셀을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다. 이것은 학습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경험해 봐야하고 그 경험을 통해 알게되는 것이다. 셀안에서 리더는 인턴을 양육할 때, 글이나 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인턴은

리더를 보고 자라게 된다. 그의 말과 행동, 결정의 방식, 셀원들을 대하는 태도, 기도인도, 모임인도등등 모든 면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방식과 동일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천국복음을 가르치셨고 인자로 섬기려 오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행동하는 신앙, 본이되는 신앙은 셀교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 일꾼들이 일어날 때 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설문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보았을 때, ‘조금 알고 있다’의 66퍼센트가 남성이라는 사실은 셀의 구조적 특징이 남성들이 접근하고 알아가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셀 안에서의 나눔과 보살핌, 격려, 교제등 좀더 여성친화적인 형태를 셀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을 개척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남성 셀의 어려움은 셀사역을 하는 모든 교회의 숙제이다. 청년셀과 여성셀은 활발한 반면, 남성셀은 모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남성들이 시간을 할애하여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음을 말씀과 훈련을 통해 계속 강조해야 한다.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남성 셀의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표 2>

우리교회가셀교회로사역할때당신의의견은?



우리교회가 셀교회로 사역할 때 당신의 의견은?

두 번째 질문인 ‘우리교회가 셀교회로 사역할 때 당신의 의견은?’ 이라는 질문에 ‘적극 찬성이다’는 8명 ‘찬성이다’는 12명 ‘어떤 형태이든 괜찮다’는 6명, 반대한다’는 의견은 4명 이었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4명으로 13.3퍼센트라는 것은 열명중 한명 이상은 ‘반대한다’라는 의견인 것이다. 그리고 반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힘들다’, ‘전통교회로 남았으면 좋겠다’ ‘전통교회가 좋다’라는 구체적 의견이 있었다. 그 답변을 한 연령층은 50대 남자2명, 40대 남자 1명, 50대 여성1명 이었다. 이 설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수의 여성은 셀교회에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이다. 셀교회의 특징인 소그룹모임에 익숙하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선호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남성층 특히 40~50대의 그룹은 소그룹 나눔을 힘들어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안에서 열린모임(전도 소그룹)이 가장 활성화 되지 않는 그룹이 남성그룹임을 발견할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남성 그룹에서는 열린모임(전도 소그룹)을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남성 열린모임(전도 소그룹)은 취미 소그룹을 잘 활용하여 남성들이 좋아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게 함으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 되어진다. 일곱 번째 질문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써 셀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한 50대 남성은 ‘건강하고 친화적인 활동’ 이라고 대답하였다. 그것은 전도소그룹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지만 남성들에게는 셀모임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서로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마음의 담을 허물고 셀사역을 이루어가고 싶은 그들인 것이다. 얼마전 남성목장의 리더가 모임을 토요일 오전 11시에 어린이대공원 산책으로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나는 그 의견에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다. 리더의 고민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목장모임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우리는 기대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것이다. 교회개척자들은 남성들이 모이는 방법을 더 연구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것이다.

또한 이 설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적극 찬성이다’라는 대답의 퍼센트를 볼 때 여성은 14.2퍼센트, 남성은 37.5퍼센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대답은 셀사역의 미래지향적 소망을 발견하게 한다. 남성들의 적극적인 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보다 더 친화적이며 유연한 가운데 셀에서의 나눔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셀의 장벽을 넘기가 쉬운 면이 있다. 반면 남성은 셀의 장벽을 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일단 시작되어지면 적극적인 면과 강한 추진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남성 셀모임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며 남성들이 셀모임의 장벽을 한번 뛰어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강력한 셀사역의 위력을 보게 될 것이다.

<표 3>

반대한다면 어떤 의견에서 반대하는지 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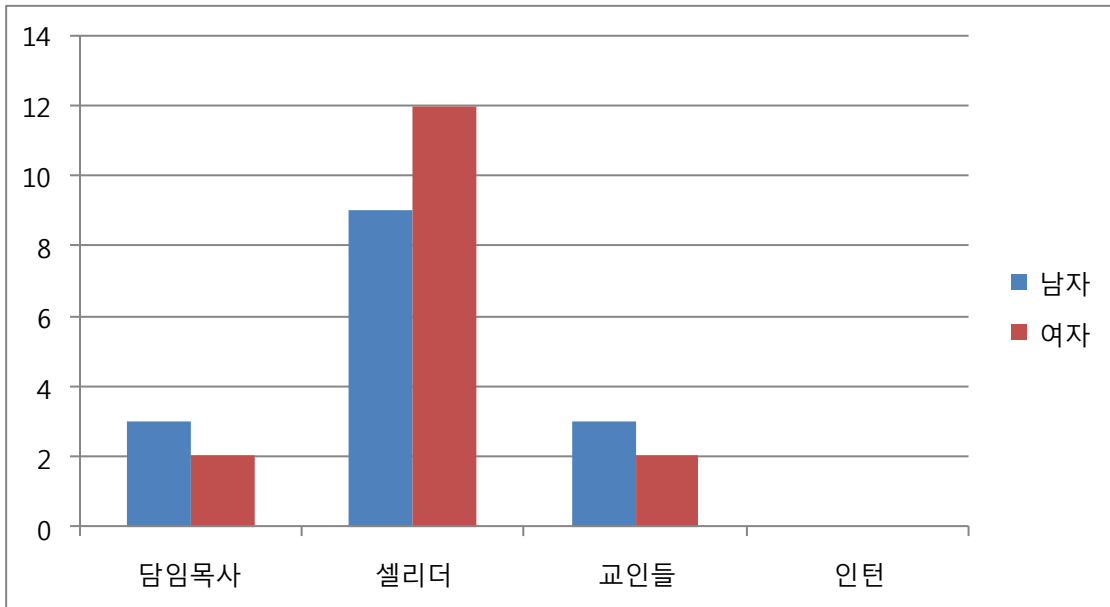
전통교회로 남았으면 좋겠다. (50대 남) 2명
힘들다. (40대 남) 1명

반대한다면 어떤 의견에서 반대하는지 써주세요

세 번째 질문에서 강변주사랑교회의 셀사역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4명이 나왔다. 그들은 첫 문항의 답변에서 보면 전통교회와 셀교회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전의 교회에서 셀사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셀리더의 일을 했던 사람도 있다. 그들은 셀교회의 어려움과 힘든 점을 잘 알기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40대~50대의 남자 3명과 50대의 여성 1명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연령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40~50대면 가장 활발히 활동할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셀사역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셀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셀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반대가 결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전통교회로 남았으면 좋겠다’, ‘힘들다’는 의견 속에는 분명 셀사역의 보완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의견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힘들어하고 왜 전통교회를 고집하는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명과 사역의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역이 일이 되어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는 선교의 현장과는 다르다. 이견이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 셀교회 역시 목양을 해야 한다.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는 지속적인 훈련이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반대의견의 사람들의 가치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그것이 공동체 리더의 역할이다. 셀이 힘들다고 하는 선입견을 바꿔주어야한다. 또한 셀사역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사역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 셀교회안의 셀사역이 아니라 그런 이들을 위해 교회 행정 사역 이라던지 교회 안에 필요한 사역의 자리로 은사배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효과적인 은사배치를 통해 사역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표 4>

셀사역의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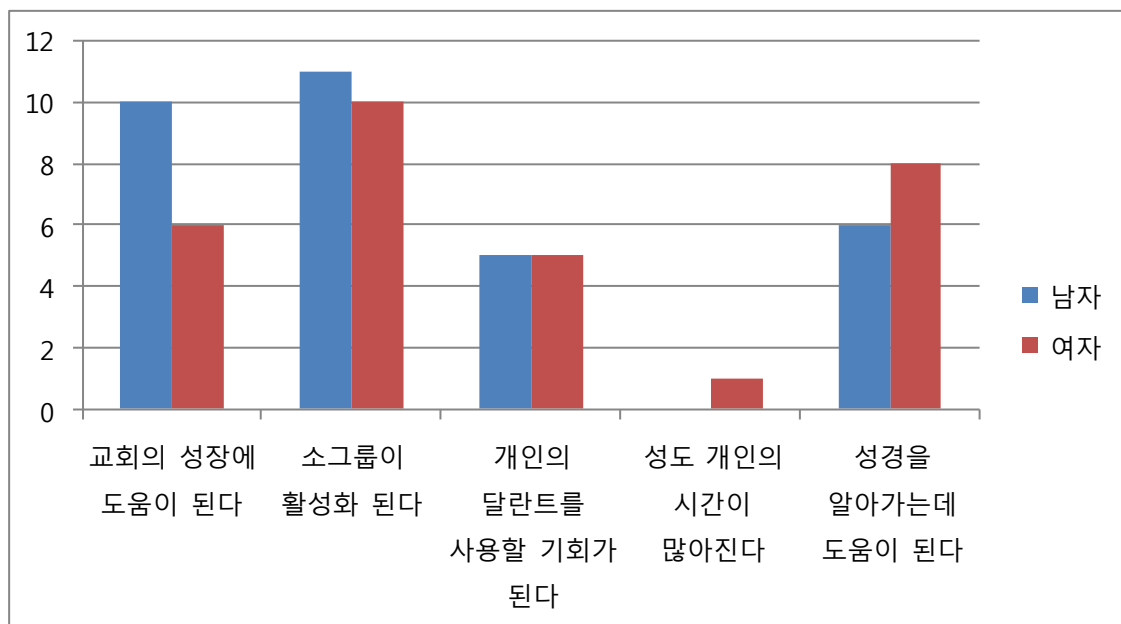
셀교회의 셀에서의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번째 질문인 ‘셀교회의 셀에서의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담임목사’라는 답변이 5명, ‘셀리더’라는 답변이 21명, ‘교인’이라는 답변이 5명 나왔다. 전체 숫자가 1명이 많은 것은 담임목사와 셀리더를 중복 선택한 사람이 1명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셀 사역의 위임에 대한 질문이었다. 과연 성도들은 위임의 방편에서 셀사역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던 목회자의 리더십을 셀리더에게 어떻게 이양하고 그 실제적 현상들을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를 알고 싶었다. 70퍼센트의 성도들은 리더십의 이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셀리더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힘을 느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리더십 가운데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담임목사’라고 답변한 16.6퍼센트의 그룹과 16.6퍼센트의 ‘교인’이라는 대답을 한 사람들은 셀교회의 리더십이 어디에 있는 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리더십이 어디에 있는 지 모른다는 것은

리더십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최영기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 한다. “저희 교회에는 32개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구역’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008:19). 가정교회는 개척교회와 비슷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개척교회에서는 신학교를 졸업한 전문 사역자를 모셔오지만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평신도가 목사의 일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2008: 21). 셀리더는 목사의 일을 하는 평신도이다. 그래서 셀 사역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셀리더들을 세울 때 임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셀리더로서 안수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리더십의 이양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셀은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 것이다.

<표 5>

셀교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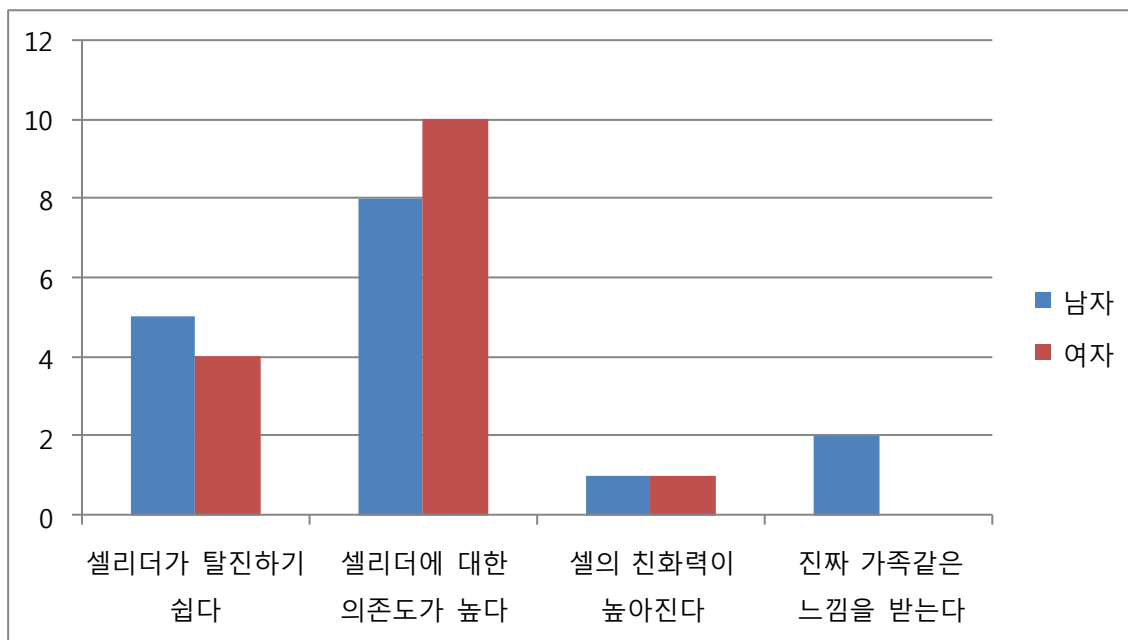


셀교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섯 번째 ‘셀교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두 골라주세요.’라는 질문에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16명, ‘소그룹이 활성화 된다.’는 답변이 21명, ‘개인 달란트를 사용할 기회가 된다.’가 10명, ‘성도 개인의 시간이 많아진다.’가 1명, ‘성경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가 14명 이었다. 이 답변이 전체 숫자보다 많은 것은 항목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셀교회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 답변자들이 선택한 것 처럼 교회성장, 소그룹의 활성화, 달란트의 적절한 사용 등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한국교회 목회현장에서 셀교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도 셀사역은 많은 도움이 된다. 강변주사랑교회를 개척한지 5년의 시간이 지나며 성도들은 보게 된 것이다. 5년동안 자진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친척집 방문을 하고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이 3~4명 정도 있었지만, 교회를 등록하고 등록교인이 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현재 등록교인 90여명은 모두 셀에서 관계전도를 통해 등록된 교인이다. 열린모임(전도소그룹)을 통해 초청되고 전도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셀교회의 첫 번째 장점은 교회가 성장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장점은 ‘소그룹이 활성화 된다.’바쁜 현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점점 쉽지 않다. 대그룹은 이루어 지는데, 소그룹은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셀사역을 하게 되면 자연히 소그룹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작은 단위의 모임들이 많아지다 보면 점점 소그룹은 활성화 되는 것이다. 죽었던 소그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개척교회는 모임을 만들기가 어렵다. 절대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그룹이 활성화 되면 숫자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 강변주사랑교회 역시 적은 숫자가 모이는 것에 스트레스가 없다. 늘 하던 소그룹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그룹의 활성화는 교회 성장으로 이어져 개척교회가 빠른 시간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표 6>

셀교회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셀교회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섯 번째 ‘셀교회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두 골라주세요.’라는 질문에 ‘셀리더가 탈진하기 쉽다’에 9명, ‘셀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에 18명, ‘셀의 친화력이 높아진다.’에 2명,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는다’에 2명이 답변을 하였다. 성도들은 셀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단점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셀리더에게 위임된 권위가 걱정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위임된 권위는 쉽게 인정하고 순복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평신도인 셀리더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셀리더는 셀목회 안에서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이다. 따라서 교회가 셀리더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사역적 의지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다. 그것은 셀교회에 있어서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어디에나 단점이 있고 그것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면에서 셀교회는 전통교회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셀리더를 대체 할 수 있는 인턴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시켜 준비시키는 것이다. 셀리더는 탈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없을만큼 무너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셀목회’를 하고자 하는 목회자는 셀리더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셀리더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힘들어 하는 셀리더들이 있다면 쉬의 기회를 주어 재충전하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의 질문에 한사람의 개인적 의견으로 ‘이기적인 개인집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셀은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이 아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다.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이 셀모임이 되어야 한다. 셀교회의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셀리더의 탈진을 교회는 대비하고, 개인의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않도록 셀사이의 매트릭스가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노력해야 할것이다.

<표 7>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써 셀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소 그룹으로 많이 나누어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대 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집중적인 교육과 은혜 나눔으로 관계성장 하는 것(50대 여)
예배와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 (50대 여)
전도의 목적 (60대 여)
건강하고 친화적인 활동. (50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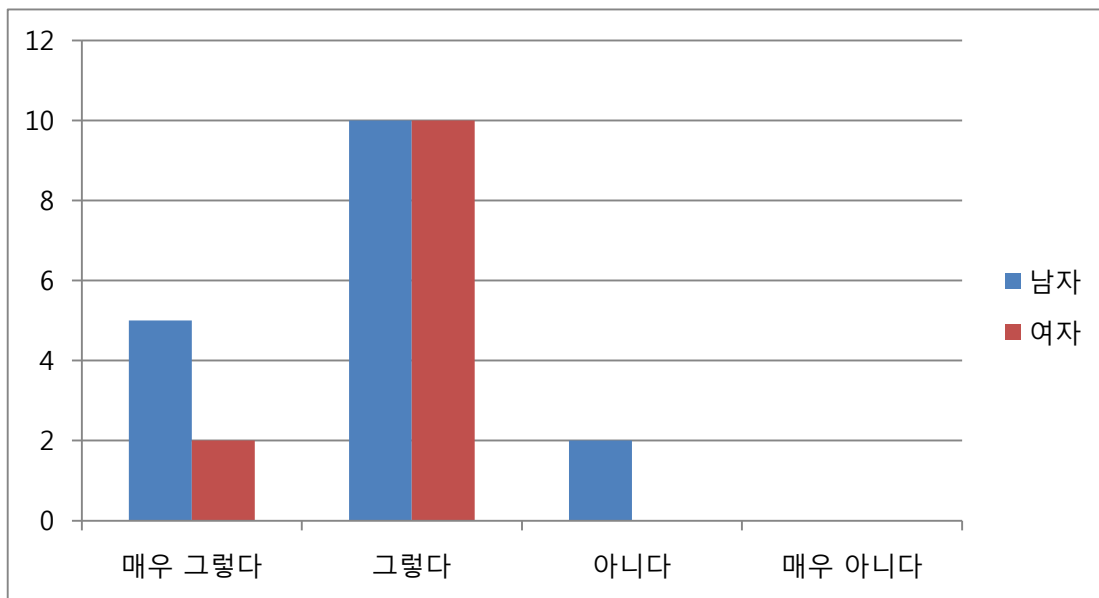
셀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도와주고 믿음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 (50대 여)
개인 믿음의 성장. (50대 여)
셀 리더에 대한 교육. (40대 남)
말씀, 기도, 교제, 화합. (30대 여)
그룹 안에서 성경을 나누는 역할. (40대 여)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셀 원끼리의 신뢰. (30대 남)
전도 (20대 여)
친교 (80대 남)
세밀한 돌봄. (40대 여)

건강한교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써 셀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곱 번째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써 셀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성도들은 위의 표와 같이 답변하였다. 위의 답변과 같이 셀교회의 역할은 건강한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세밀한 돌봄과 교제에 힘써야 한다. 특히 형식적인 셀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가족모임이 되는 셀교회, 대그룹과 소그룹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한다. 셀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가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표 8>

셀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셀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덟 번째 ‘셀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7명, ‘그렇다’가 20명, ‘아니다’가 2명이 답변하였다. 셀은 과연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성도들의 93.1퍼센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6.8퍼센트에 불과 하였다. 그것은 두 번째 질문에서 셀교회 사역에 반대 의견을 냈던 4명중 2명도 셀이 교회 성장에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개척교회를 자립교회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양적 성장을해야 하고 재정적 자립도 이루어야 한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기도제목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척교회를 시작하며 자립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데 있어 불투명, 불건전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목회자가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노력할 때 그것을 순수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사익을 취하려는 모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성장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내려고 해서 안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체적 잠재력을 풀어 놓아 스스로 운행하게 하면 된다. 교회 내부나 외부에 존재하는 성장 장애요인들을 최소화 하면 된다. 교회 밖의 요인들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성장과 부흥을 방해 하는 교회의 내적 요인 제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럴 때 교회성장은 저절로 이뤄진다(슈바르츠, 2003:10). 강변주사랑교회도 교회를 개척하며 셀사역을 접목하여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더 많은 구제와 선교사 후원을 위한 성장이었다. 성도들도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선교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점점 선교후원이 늘어 지금은 1명의 선교사 파송(공동파송), 3명의 협력선교, 1곳의 선교단체 후원을 하고 있다. 아직 개척의 티를 벗지 못한 교회로는 최선을 다해 선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이 땅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성장이라는 선물을 주실 줄 확신한다. 그리고 교회성장의 방향성이 변질 되지 않도록 교회와 목회자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9>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말해주세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진다. (20대 여)
교인들 개개인의 신앙심을 강화. (40대 남)
셀이라는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통해 부흥이 되게 하는 것. (50대 여)
새 신자를 교육하여 그 속에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심어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음. (80대 남)
리더십이 지나치게 한 곳에 집중되어 성도의 세밀한 도움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 셀 모임을 통한 나눔과 동시에 유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30대 남)

어렵지 않게 성경을 나누는 모임이 생겨난다. (40대 여)
성도 개인 믿음의 성장이 교회 성장으로 이어짐. (30대 여)
교회 활성화, 초신자 적음. (40대 남)
셀 리더의 역할에 따라 교화와 성도 개인의 믿음이 성장 할 것 같다. (50대 여)
성도 간의 대화와 교회의 성장. (60대 남)
서로 많은 나눔으로 교인 개인의 믿음 성장이 곧 교회 성장으로 이어진다. (50대 여)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나게 된다.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투쟁하는 동료라는 생각에 힘이 된다. (50대 남)
셀 리더와 합심하여 전도에 용이하다. (60대 여)
셀 교회를 통해 서로 성장 할 수 있고 그룹 활성화를 통해 전체적인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0대 남)
전도를 통해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 부흥할 수 있다. (60대 남)
소외된 사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40대 여)
개인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 개인의 신앙과 교회성장에 도움. (30대 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된다. (50대 여)
개인 신앙성장에 도움이 된 거 같다. (40대 남)
소 그룹이 활성화 되어 친목뿐 아니라 전도에 도움. (20대 여)
교회소식을 알 수 있다. (60대 남)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말해주세요

아홉 번째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말해주세요.’라는 질문에 성도들은 위의 표와 같이 답변해 주었다. 셀사역이 교회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93.1퍼센트가 생각하였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도움은 어떤것인가? 이 질문은 목회자의 관점에서 본 성장의 이유가 아니라 성도들의 관점에서 본 성장의 이유이다. 몇 가지의 예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0대 남자성도가 한 말이다. “리더십이 지나치게 한 곳에 집중되어 성도의 세밀한 도움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 셀 모임을 통한 나눔과 동시에 유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셀목회의 특징을 잘 묘사해 주었다. 성도 개개인의 세밀한 보살핌이다. 셀은 그런 역할을 한다.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셀 안에서는 더욱 세밀하고 친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목회자의 입장이 아닌 같은 평신도에게 듣는 조언과 위로는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성장이 유기적, 자연적 성장이다. 셀안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교회안에 소외된 사람들, 스스로 앞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셀을 통해 친화가 되면 사역의 현장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강변주사랑교회는 전 성도가 사역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힘든 사역일수록 셀로 묶어서 함께 사역하게 한다. 9개의 목장이 순번을 정해 식당 설거지 봉사를 하고, 지역별로 흩어져 노방 전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교회 식사 준비도 신청자에 한해 함께 하도록 한다. 또한 교회 행정을 위해 6명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3년 주기로 모든 운영위원을 교체한다. 즉 전성도가 함께 사역의 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개인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 개인의 신앙과 교회성장에 도움’이라는 답변을 한 30대 여자 성도처럼, 개인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 각 사역의 현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그럴때 셀사역은 빛을 발할 것이고 교회성장에 도움이 될것이다.

<표 10>

셀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건강한 셀 리더 훈련 교회의 방향성에 일치하며 유기적 성장이 가능한 프로그램. (30대 남)
말씀, 기도, 교제. (30대 여)
리더에 대한 교육과 신앙관리. (30대 여)
서로 이해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 해야 한다. (50대 여)
교인들의 신앙 공고화, 성경말씀 교육. (40대 남)
잘 모릅니다. (60대 여)
장소와 내용의 정례화 정기적 모임 단순하지만 요약적인 교재. (50대 남)
개인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셀 리더에게 순차적으로 방향제시와 비전이 공유되도록 교육과 보살핌이 필요 할 거 같다. (50대 여)
말씀 중심의 모임. (40대 남)

셀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열 번째로 ‘셀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변을 주었다. 앞으로 셀사역을 통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질문을 한 것이다. 30명중에 9명이 답변을 해 주었다. 한명은 ‘잘 모릅니다.’라고 했으므로 정확히 8명이다. 26.6퍼센트의 답변율이다. 이것은 셀사역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고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이다. 그러나 셀사역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함께 가지만, 그것에 대한 공급은 목회자가

해주어야 한다.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고 함께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목회자가 분명한 방향제시를 해주어야 한다. 그럴때 성도들은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개척자들과 셀사역 헌신자들을 위한 제언

개척자들의 자세

개척자들은 나무를 심은 사람의 아이작 뷔페처럼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야할 사명이 있다. 셀은 생명력있는 것이기에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수고하고 땀흘린 만큼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있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개척자는 사역의 현장을 놓쳐서는 안된다. 교회의 셀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고구분투하며 사역의 현장을 누벼야 한다. 마치 관리자처럼 오더를 내리는 지시자처럼 행동하고 사역해서는 안된다. 각 열린모임의 현장마다 달려가야 하고, 훈련을 최선을 다해 시켜야 한다. 사람은 느낄 수 있다. 지도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개척자들은 그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이 사역을 생명걸고 하고 있음을....그리고 평신도사역자를 자신의 어깨위에 올릴만큼 키워내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척자들의 준비

셀사역을 통한 교회개척을 원하는 개척자들은 자신이 인도하는 원형셀이 있어야 한다. 셀의 인턴은 원형셀을 통해 배출되고 원형셀은 교회 모든셀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셀사역을 통해 시작하고자하는 개척자는 원형셀을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교회개척의 씨드멤버이다. 개척자는 그들을 훈련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멤버들의 성장이 교회성장과 직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 멤버들은 장차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될 것이다. 양육과훈련이 필요한 새신자들을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중 하나이다. 따라서, 개척자의 땀과 눈물이 흘러질 때 원형셀은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원형셀이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이제 개척의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셀사역의 제언

셀사역자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셀 사역의 특성상 반복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반복으로 느끼지 못하게 늘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셀사역자는 진취성과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진정성이 중요하다. 진정성이 결여될 때, 공든탑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언행일치로 말씀과 삶이 동일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동체안에서 작은 의심과 불신으로 관계의 담이 무너지면 셀사역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리고 셀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개척과 성장의 도구라는 확신이 없다면 선불리 셀사역을 시작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열린모임이 안된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된다. 제자훈련이 안된다고 포기하면 안된다. 한사람이 남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라. 그것이 셀사역 성공의 비결이다.

제 5 장

결론

요약

본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셀사역을 통한 교회개혁 성장 방안에 대해서 제시했다.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와 개혁현장의 척박함을 제시했고, 이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중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과 연구 개관, 연구의 제한점 등을 제시하였다.

본론 부분의 시작인 2장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셀의 원형인 구역에 대한 정의와 목적,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고찰하였다. 교인들의 관리와 교육행정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회의 작은 행정 단위이기에 구역은 관리의 성격이 강함을 알게 되었다. 한 지역에 편성된 구역을 통해 구성원들이 함께 호흡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며, 전도를 통해 교회를 성장 시키는 목적을 구역은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의미의 구역이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그 구조적 목적에 이르지 못함을 보게된다. 형식적인 모임이되고 유연성이 없는 구역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되며 실질적으로는 구역조직의 영어번역이지만 교회성장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지며 새로운 정의와 목적을 갖게 되었다. 즉 셀은 소그룹으로 모인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속의 교회로서 그 안에 돌봄과 양육, 교제, 전도, 위침등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작은 교회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셀과구역, 셀과 제자훈련, 셀과 가정교회의 상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면 역동적인 셀을 통해 교회는 전혀 다른 조직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성경적 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셀교회의 구조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과중한 업무를 이드로와

각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에 맡기고 있음을 보게된다. 이것은 셀교회가 취하는 형태와 동일하다. 신약의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공동체의 형태가 셀교회의 근간이 되는 소그룹 가족공동체이다. 마태복음 18:20의 “두 세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중에 있느니라”는 셀 그룹, 즉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1세기 신약교회는 이중적 형태로서의 공동체였다. ‘모여진’ 상황은 대그룹의 만남이며, ‘흩어진’ 상황은 가정교회로 만나 셀로 결합된 형태인 것이다. 초대교회의 생활과 증거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므로 유지되었다.

역사적 셀에대한 고찰을 통해 1세기 역사속에서 셀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확연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3세기로 넘어오며 엄격한 구별이 지워지게 된다. 그리고 콘스탄틴 이전의 초대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동시에 존재했었다. 그러나 서기 312년 교회는 대모임이라는 형태에서 전적으로 특별한 건물에서만 이뤄지는 집회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결국 셀은 종교개혁 이후가 되기까지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회복의 열망은 종교개혁으로 표출 되었다. 개혁자들은 교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예배의 변화도 꾀하였다. 그러나 이단들의 발호로 소그룹의 모임은 금지되었고, 소그룹 공동체의 전통은 진젠도르프와 그가 이끄는 모라비안들에게로 이어진다. 이후 웨슬리가 운영한 속회들은 그 성격상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교회 역사를 볼 때 소그룹은 전면에 부각되기도 하고 역사의 뒤편에 사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용하신 두날개를 가진 교회의 구조는 21세기에든 교회의 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

제3장의 사례연구에서는 셀 사역으로 성장한 풍성한 교회를 사례연구 하였다. 두날개 양육시스템으로 건강한 셀교회를 꿈꾸며 달려가는 풍성한 교회는 NCD 국제본부의 건강지수 평균 10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교회이다. 은사발견세미나를 통해 훈련된 전 성도들을 사역배치하고 전성도가 사역하자는 사역정신을 갖고있다. 풍성한교회의 핵심은 열린모임(전도소그룹)이다. 오픈 셀인 열린모임을 통해 하나의 목표인 전도를 향해 한마음, 한뜻, 한목소리를 내며 나아간다.

제4장에서 강변주사랑교회의 개척과 현 상황의 모습을 설문 조사하였다. 강변주사랑교회는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으로 개척되었다. 경배와찬양의 1호 개척교회로 셀사역을 통한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다. 2020세계비전을 목표로 같은말, 같은 뜻, 같은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전통교회가 아닌 셀사역을 접목하여 생명력있는 교회를 만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도들은 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성도들의 셀에대한 인식과 의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86.7퍼센트의 성도가 셀사역을 지지하며 셀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셀사역을 반대하였던 13.3퍼센트의 성도들도 50퍼센트는 셀사역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변주사랑교회는 셀사역을 통한 이땅에 건강한 교회로의 본질의 회복과 교회성장의 열망을 품고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달려가고 있다.

결론 및 제언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속화, 이슬람의 성장, 동성애, 젊은 세대의 실종, 물질만능주의등 교회는 초대교회가 받았던 핍박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런 위기가운데 한국교회는 침체기를 맞았고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교회는 성장을 멈추었고, 개척교회는 사역을 포기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도시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별히 교회개척에 앞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자는 교회개척을 앞두고 준비하는 예비 개척자들에게 셀사역을 통한 교회개척을 제안하는 바이다. 셀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 살아숨쉬는 세포와 같이 셀은 영양분만 공급 되어지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자라나는 것이다. 본 논자는 강변주사랑교회 개척을 통해 작은교회, 개척교회에도 셀사역은 충분히 접목가능함을 보았다. 오히려 개척교회가 셀사역을 접목시키기에 더 유리함을 보았다. 그리고 작은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보았다. 정통교회를 셀교회로 전환하는 것은 셀사역에 대한 거부감이라던지 반대가 더 심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변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설문 조사에서도 반대를 하는 소수는 다른교회에서 셀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셀사역은 반대에 부딪히고 성도들을 탈진하게 만든다. 그리고 탈진의 원인을 본인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사역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셀사역으로 개척을 하는 이들은 셀사역에 대한 확신과 변함없는 지속성으로 사역을 완수해야 할것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중에 계속 변화되는 교회의 시스템일것이다. 확신이 있다면 사역의 끝을 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강변주사랑교회는 셀사역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계속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사역의 핵심인 열린모임(전도소그룹)을 통해 매 차수마다 새로운 성도가 등록을 하고 있다. 환경을 볼 때 성장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사역적 도구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부흥과 성장이다. 그것은 숫자적인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것이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을 이뤄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제 교회개척을 준비하며 성장을 열망하는 이들에게 이 논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셀의 토양 아래서 잘 자라나기를 소망한다. 셀사역을 교회가운데 잘 접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한다.

ENGLISH SUMMARY

Through this dissertation, the author proposed growth of the church plants through cell ministry. The critical condition of Korean church, and the barren status of church planting were discussed. The dissertation's background, purpose, goal, importance, central task, questions of research, methodology, introduction and limitation of research were presented.

Chapter 2 started with preceding research on cell's original form GooYuk, and its definition, purpose, structure and function. Because of its convenience as church's small unit to function to manage church membership and administer education, its intense character on management was noticed. With members in specific areas, cell ministry promoted growth in faith, and it had the purpose of growing church through evangelism. However, regardless of its good intentions, it did not fulfill its structural purpose. It became perfunctory meeting without flexibility. That is the reason why even though GooYuk is cell in English translation, scholars of church growth presents new definitions and purposes. Cell consists congregational members of church in small groups, with qualification of church to care, nurture, fellowship, evangelism and worship; it is a church within a church.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of cell with GooYuk, discipleship training, and house church, it is realized that through dynamic cell, the church can be completely different organization.

Structure of cell church has specific biblical basis through study on biblical cell. Based on Exodus chapter 18, we are able to see the overwhelming workloads of Moses as he was delegating to Jethro and "chief of thousand, of hundred, of fifties, and of tens." This is the same system with the cell church. In New Testament Gospels, Jesus displayed

small group family community, which is the foundation of cell church. Matthew 18:20 says “For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in my name, there am I among them;” even in small numbers, there is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who meets in the name the Christ. First century New Testament church was a community of dual shape. When they were “gathered,” it was a big group meeting, and when they were “scattered,” it became a house church cell meeting. Early church’s life and testimony was maintained through “day by day, attending the temple together and breaking bread in their homes.”

Through historical studies on cell, it was hard to distinguish priesthood and lay people in the first century church history. However, while going through second and third century, strict distinction erased. And early church before the Constantine, both big group and small group existed. But in year 312, only meetings of big group existed in special spaces in church. Thus, cell only had a thread of life through Reformation. Finally, the desire for restoration was expressed through Reformation. Reformers not only altered the structure of church but also changed worship. But through the activity of heresy, meeting of small group was prohibited, and the tradition of small group community was passed onto Zinzendorf and Moravian. Then, Wesley’s divisional prayer meeting displayed similar characteristics of house church of early church. Through history, small group was standing in front, and it had also disappeared. But the structure of cell in church was used by God from the beginning, and it can be an alternative in restoring the true fundamental of the church in the 21st century.

Chapter 3 presents the case studies of PoongSungHan Church’s growth through cell. PoongSungHan Church, striving to be healthy cell church through two-wing nurturing system have received a score of high average of 107 in its health index with NCD’s international headquarter. Training members through seminars on Discovering Gifts, all members were placed in ministries with the mindset to minister. The core of

PoongSungHan Church is open cell, which is an evangelism small group. Through this open cell, members share one heart, one vision, and one voice for evangelism.

In chapter 4, planting of Riverside JooSaRang Church, and current condition was examined through a survey. Riverside JooSaRang Church was planted with the vision of healthy church. Through Worship and Praise's of first church plant, it dreams of all members ministering together. With "Vision 2020," they wholeheartedly work together for this vision. They strive to be actively living church with cell ministry, rather than being a traditional church. The members have a high understanding of cell, and have a clear purpose and direction. Members' awareness and volition was affirmed by the survey. 86.7% of members supported cell ministry, and wanted to continue it. 50% of 13.3% opposing members also were aware that cell ministry was helping with the church growth. In conclusion, through cell ministry in Riverside JooSaRang Church, members are sharing the vision of healthy and restored fundamentals of church with the desire of church growth.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 김성곤
 2005 *다시 쓰는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교회*. 경기: 두날개
 2008 *풍성한교회 이야기*. 경기: 두날개
- 박홍래
 2003 *셀그룹 셀교회*. 서울: 서로사랑
- 이상수
 2003 *건강한 교회성장 이제는 시스템이다*. 서울: 말씀삶
- 정일웅
 2000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이레서원
 2002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이레서원
- 최영기
 2007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2008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출판사
- 최정성
 1993 *구역관리와 교회성장*. 경기: 엘멘출판사
- 데이비드 핀켈
 2000 *셀교회 평신도지침서*. 박영철 역. 경기: NCD
- NCD 편집부
 2002 *신병훈련소(리더용)*. 유충열 역. 경기: NCD.

- 랄프네이버
1999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 로렌스 쿡
2001 *신사도적 셀교회*.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 빌 벡햄
2000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경기: NCD
-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2004 *G12 비전으로 세계를 주님께*. 김동조 역. 서울: 국민일보
- 조엘 코미스키
2000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경기: NCD
- 폴 스티븐슨
2015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 역. 서울: IVP
- 하워드 A. 스나이더
1997 *그리스도의 공동체*. 강영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혁신적인 교회갱신과 웨슬레*. 조종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S. 라토렛
1997 *기독교의 역사*. 허호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에르네스트 슈투플러
1993 *경건주의 초기역사*. 송인설 역. 서울: 솔로몬말씀사